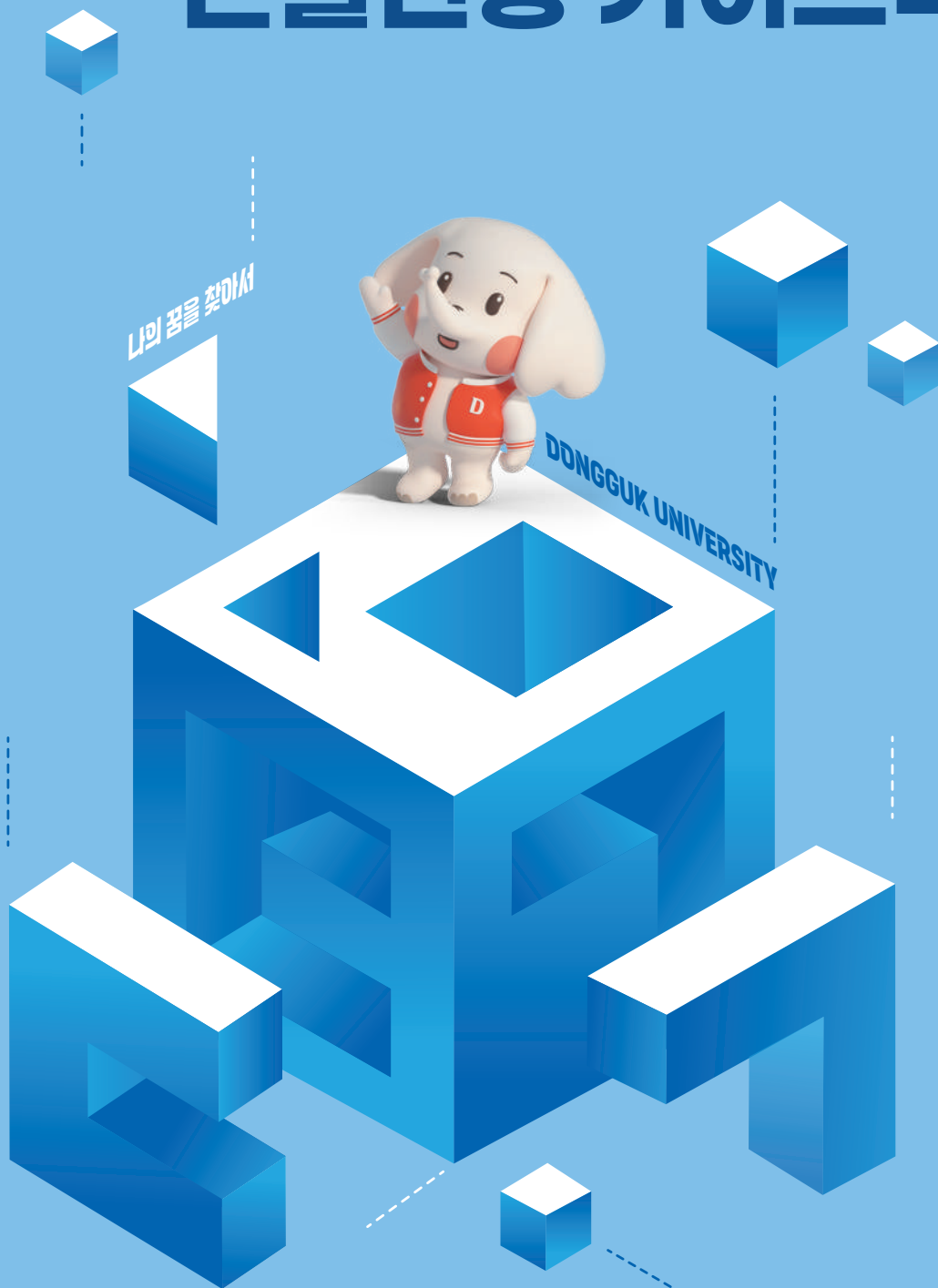




DONGGUK
UNIVERSITY

더 나은 대학을 위하여

2025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DONGGUK UNIVERSITY

국내 TOP5, 세계 TOP100
목표를 향해 동국대학교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2025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CONTENTS

DONGGUK INITIATIVE

- 004 동국대학교 소개
- 014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안내
- 022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특징 및 유의사항
- 023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 관련 FAQ
- 025 논술 작성 Tip
- 026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 031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 035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 039 2023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 043 2023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 047 2022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 051 2022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 055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 060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 065 2023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 069 2023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 073 2022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 078 2022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자연계열

- 084 2024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 088 2023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 092 2022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 096 2024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 103 2023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 109 2022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교육방향

CREATING NEW EDUCATION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을 만든다

ADMISSION

핵심역량

Dream PATH



독자적
깊은 사고



넓은 지식과
도전적 경험



협동적
실천

창의융합

디지털

글로벌시민

자기개발

소통협력

전공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교양교육

전공제도

다전공
(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전과제도
공학교육인증제
창업대체학점인증제
학·석사 연계과정

융합교육

마중대학 / 마중학과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 / 상담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해외교류 프로그램

자기탐색과 리더십
교전과 창의융합
전지구적 사고와 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글로벌 의사소통

동국대학교는 융합교육과 학생성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수진 및 인프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ONGGUK

ADVANCE

창조적 지식인
Creative Thinker

진취적 도전자
Young Challenger

도덕적 지도자
Ethical Leader



주요성과

DONGGUK IN GROWTH

꾸준한 성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국대학교



<2021~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 연속 TOP 10,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미래차·로봇분야 45명 증원 등
동국대학교는 담대한 도전으로
세계대학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역대 최고 순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서울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선정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5위

학생교육부문

8위

역대 최고 종합순위

7위

순수취업률



숫자로 보는 동국대학교의 성과

교육중심 대학평가

컴퓨터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평가
국내 최초 유일 2회 연속 최우수 인증

ONLY ONE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2021.3.~2023.2.)

IEQAS 인증대학

정보통신공학전공
2022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2연속 최우수 등급

학생만족도 NCSI
(2021)

사립대학 7위

창업교육비율
중앙일보대학평가(2023)

1위

교육 인프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6년간 109억원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대학알리미 공시정보(2023)

3,556,377원

9년 연속 100억 이상 모금 5대 사립대
대학알리미(2011~2019 회계년도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국내 TOP 5

118년 역사가 배출한 동문

350,000명

교육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지원사업 선정
(2014~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선정
(7년간)

84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주관기관 선정(2023)(4년간)

87억원



비교과 프로그램

DONGGUK DREAM PATH WE MAKE TOGETHER



Dream PATH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교과와 비교과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상담, 활동관리

교수님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진로준비 및 심리검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량개발 활동

필요한 역량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점검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안도 해줍니다.

1

진단

각종 진로적성검사도
해볼 수 있고 기업 및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3

진로설정

희망 진로분야를 설정하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4

5

포트폴리오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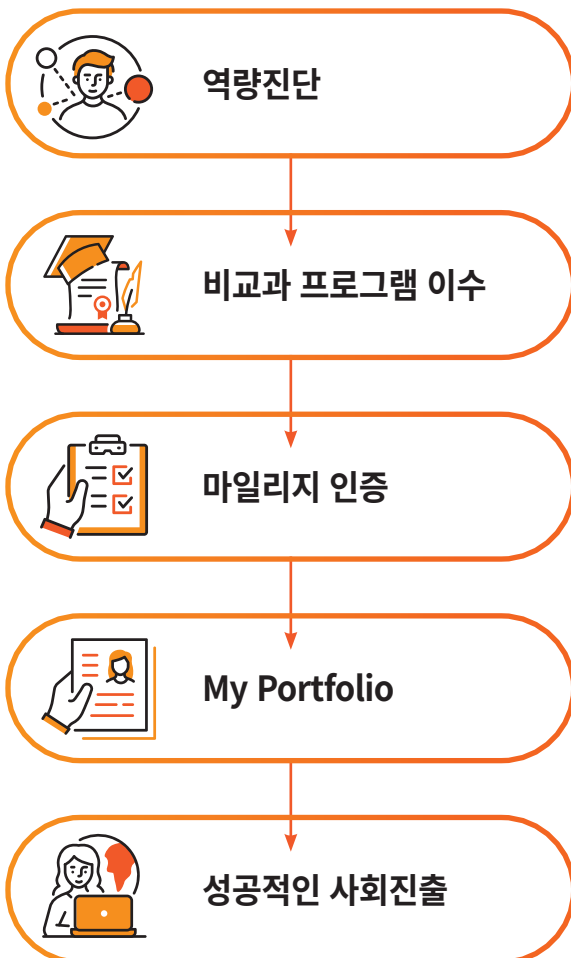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학생역량통합 관리시스템



동국대학교에는 꿈을 찾아가는 길,
Dream PATH가 있습니다.



Start

진로 설계

현재 나의 역량과
희망취업분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안내해줍니다.

진로 의사결정

역량진단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졸업한 선배들과 역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개발활동

-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역량개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

입학에서 졸업까지
커리어로드맵을 그려보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reer

국제화 프로그램

DONGGUK
WITH
THE WORLD

54개국 329개 대학과 교류하며
세계와 함께 하는 동국대학교의 비전은
새로운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류 대학

54개국 329개 대학

2023년 12월 기준 대학교류 현황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인증대학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외국인학생
비율

국내 9위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America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rookly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UNY Stony Brook University

에콰도르

Universid Internacional del Ecuador

브라질

University of Sao Paulo

교환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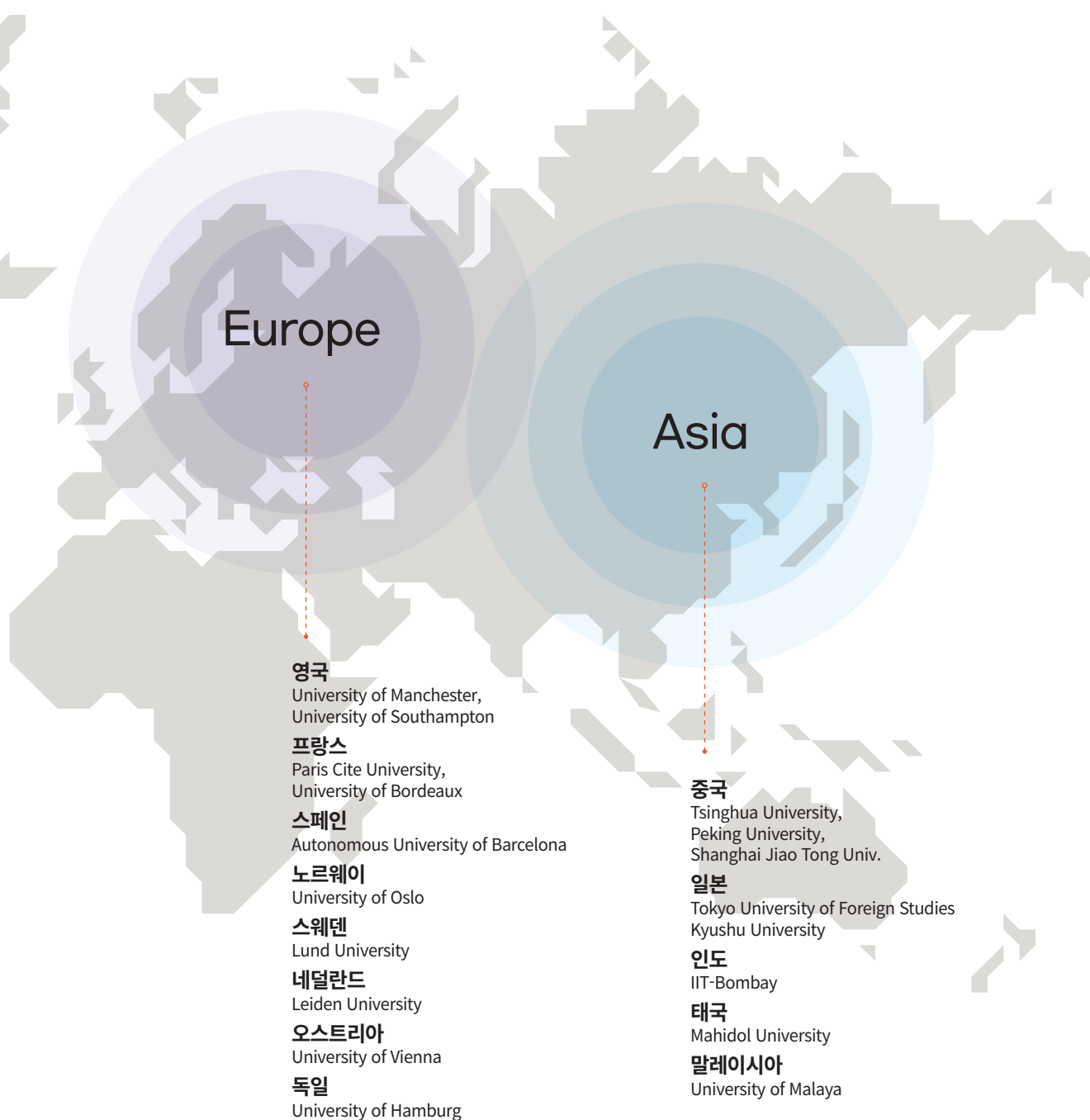
해외 자매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시점 기준 1학기 이상 이수자,
평균 평점 3.0 이상이면 지원 가능

국내외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다

동국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두 대학 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중국 동북 사범대,
국립 대만 사범대, 일본 니가타 대학 등의
학위 취득 가능



• 동국벳(Bud) •

Win-win하는 1:1 매칭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의 1:1 매칭으로 외국인 교환학생의 유학생활 정착을 서포트하고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 언어 교환 •

자율적으로 스터디 효과를 높인다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교환학생 1명과 재학생 2~3명이 튜터링 그룹을 조직해 다양한 외국어를 자율적으로 학습합니다.

• 해외인턴십 •

글로벌 감각으로 진로를 설계한다

2개월에서 1년까지의 파견기간 동안 직무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키웁니다.

•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다국적 학생과 특별한 여름을 보낸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학생들과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의 참 지식을 배우며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교류로 어우러집니다.

DONGGUK ZONE

SEOUL TRIP AROUND DONGGUK

교육으로 미래를 꿈꾸는
동국대학교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동국과 함께
떠나는
서울여행



남산공원 & N서울타워

걷기 좋은 남산 산책로는 동국대학교 캠퍼스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절을 느끼며 조용히 걷고 싶을 때,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남산공원에 닿아요. 캠퍼스 바로 위쪽에 위치한 N서울타워에서의 야경 감상을 추천합니다.

- ③, ④호선 충무로역
- ③호선 동대입구역

명동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운동 삼아 걸어도 금방인 이 곳. 쇼핑, 극장, 맛집이 모두 있는 명동에서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해 보세요.

- ②호선 을지로입구역
- ④호선 명동역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물로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도보 15분이면 갈 수 있는 DDP는 다채로운 디자인 콘텐츠와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②, ④, ⑤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를 나르면 바로 보이는 장충단공원은 캠퍼스 아래쪽으로 학교와 맞닿아 있어 등하굣길에 만나게 되는 친숙한 공간입니다. 작고 조용한 공원의 사계절을 느껴보세요.

- ③호선 동대입구역



삼청동과 북촌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색다른 공간을 찾는다면 삼청동과 계동을 아우르는 북촌을 추천합니다. 이색 맛집과 아기자기한 카페, 정독도서관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많이 담게 될 거예요.

- ③호선 안국역·경복궁역
⑤호선 광화문역



을지로

새로운 핫플레이스 ‘힙지로’는 레트로한 기존 상권에 힙한 감성을 덧칠한 복고풍 카페와 맛집이 곳곳에 숨어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힙지로’에서 서울 한복판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 ②, ⑤호선 을지로3가역



이태원과 경리단길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이태원과 경리단길은 남산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요. 남산공원과 N서울타워를 구경하고 산책길로 내려가면 이태원과 경리단길이 나오죠. 이국적인 먹거리, 다국적인 사람들이 모인 서울의 가장 글로벌한 곳에서 이색적인 문화를 즐겨보세요.

- ⑥호선 이태원역·녹사평역



대학로

낙산공원과 마로니에 공원에 인접해 낭만과 활기가 살아있는 곳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 매일매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 ④호선 혜화역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의 상징인 남산 투어에서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서울시 민속자료인 한옥을 이전, 복원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한 곳입니다. 외국인 친구나 부모님과 방문해도 참 좋은 코스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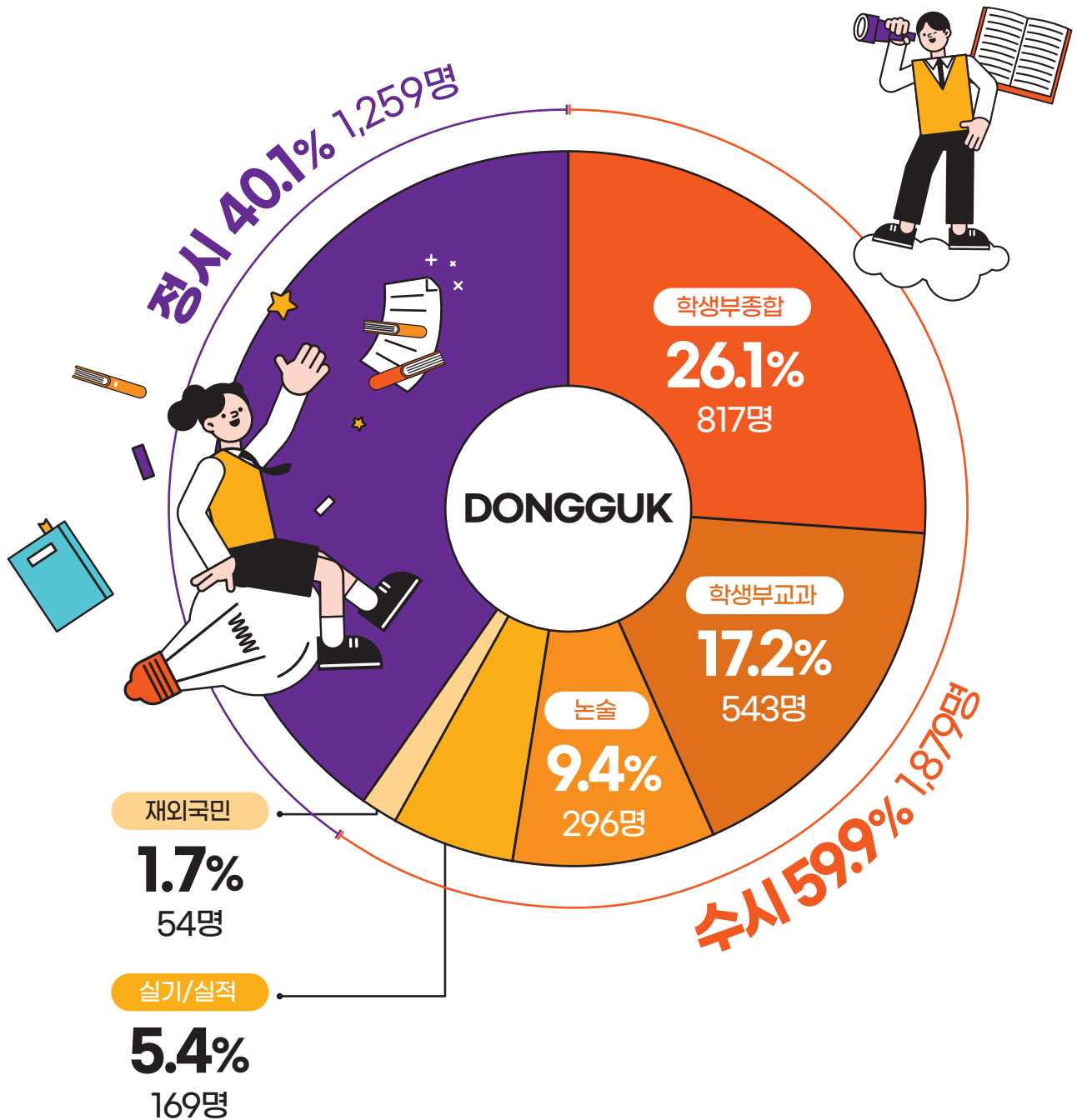
- ③, ④호선 충무로역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안내

본 전형 안내는 <2025학년도 신입학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총괄 현황표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Do Dream			507	16.2
		Do Dream(소프트웨어)			64	2
		불교추천인재			108	3.4
		기회균형	기회균형통합		130	4.1
			특수교육대상자		8	0.3
	학생부종합 계				817	26.1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인재			384	12.2
		기회균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류형	92	2.9
				면접형	67	2.1
	논술	논술			296	9.4
	실기/실적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69	5.4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	실기형			
			특기형			
		스포츠문화학과				
		한국음악과				
재외국민(일반)/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북한이탈주민			54/0/0	1.7		
수시모집 계				1,879	59.9	
정시 가군	수능	일반			496	15.8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36	1.1
			특성화고교졸업자		6	0.2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4	0.4
	학생부교과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3	0.1
정시 나군	수능	일반			568	18.1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45	1.4
			특성화고교졸업자		4	0.1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7	0.9
정시 다군	수능	일반			54	1.7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6	0.2
정시모집 계				1,259	40.1	
총계				3,138	100	

※ 상기 모집인원은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주요 전형방법

전형유형	전형명	구분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생부종합	Do Dream / Do Dream(소프트웨어) 불교추천인재 기회균형	1단계 (2~5배수)	서류종합 100%	미적용
		2단계	면접 30% + 1단계성적 70%	
		일괄	학생부교과 70% + 서류종합 30%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인재	일괄	학생부교과 70% + 서류종합 30%	
논술	논술	일괄	논술 70% + 교과 20% + 출결 10%	적용
정시	수능 일반(인문·자연계열/영화영상학과)	일괄	수능 100%	미적용

■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모집 선발인원

	17.3% 학생부교과(543명)	5.4% 실기(169명)			수시 59.9%
26.1% 학생부종합(817명)		9.4% 논술(296명)		1.7% 재외국민(54명)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실적	재외국민 (일반)	수시 모집 계
		Do Dream	Do Dream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기회균형		학교장 추천 인재	기회균형		논술	실기		
					기회 균형 통합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서류형	면접형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불교	불교학부			일반20 승려20	2		3						45
	문화유산학과	3		일반2 승려5			3					1	14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7			2		4			6	23	2	44
	영어영문학부	15		3	4		13			10		2	47
	일본학과	7			2		4			5		1	19
	중어중문학과	7		2	3		6			5		2	25
	철학과	5					2			5			12
	사학과	7			2		5			4		1	19
이과	수학과	9			2		5			4		1	21
	화학과	9			3		5			4		1	22
	통계학과	9		2	3		5			4		1	24
	물리학과	7					4			3			14
법과	법학과	19		3	6	1	14			15		2	60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전공	8		2	2		6			6		2	26
	행정학전공	6		2	2		6			6		2	24
	북한학전공	7					3						10
	경제학과	17		4	6		15					1	43
	국제통상학과	12		2	3		9			12		2	40
	사회학전공	8					5						1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0		2	3		9			5		2	31
	식품산업관리학과	8			2		4						14
	광고홍보학과	10		2	3		8			6		2	31
	사회복지학과	5		2		1	3						11
경찰 사법	경찰행정학부	8		2	3		8			인문15 자연5		3	44
경영	경영학과	25		3	6	1	20			18		3	76
	회계학과	13		3	5		10			13		1	45
	경영정보학과	12		2	5		10			10		1	40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10		2	2		8			4			26
	생명과학과	10			3		8			4			25
	식품생명공학과	12		2	3		10			5		1	33
	의생명공학과	9			3		6			4		1	23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실적	재외국민 (일반)	수시 모집 계
		Do Dream	Do Dream (소프트웨어)	불교 추천 인재	기회균형		학교장 추천 인재	기회균형		논술	실기		
					기회 균형 통합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서류형	면접형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9		4	6	1	26			24		3	93
	정보통신공학과	20		2	4	1	9			13		1	50
	건설환경공학과	12		2	3		9			7			33
	화공생물공학과	14		2	4		12			7		2	41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0		2	3		9			7		2	33
	건축공학부	16		2	3		9			5			35
	산업시스템공학과	12		2	4		13			6		1	38
	에너지신소재공학과	9			2		6			6		1	24
AI 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64	3	5	1	22			인문 4 자연20		4	123
	시스템반도체학부	10		2	2		5			4		1	24
사범	교육학과	6			2	1	4			5			18
	국어교육과	8			2	1	6					1	18
	역사교육과	9			2		7						18
	지리교육과	8			2		7						17
	수학교육과	6			2		4			5		1	18
	가정교육과	8			2		7						17
	체육교육과										23		23
	예술	불교미술전공										15	
한국화전공											15		15
서양화전공											15		15
조소전공													-
연극학부		10									실기38 특기2		50
영화영상학과		15			2		4					2	23
스포츠문화학과											22		22
한국음악과											16		16
약학	약학과	11					4			5			20
미래 융합	융합보안학과							20	20				40
	사회복지상담학과							20	20				40
	글로벌무역학과							52	27				79
계		507	64	108	130	8	384	92	67	296	169	54	1,879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우리대학 학칙개정, 편제 및 정원조정, 모집단위 광역화 등에 따라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 가능



DONGGUK
UNIVERSITY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모집 선발인원

정시 **40.1%**
40.1%

정시(1,259명)

대학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정시 모집 계
		수능			학생부 교과	수능			수능				
		일반	기회균형				일반	기회균형			일반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불교	불교학부					18						18	
	문화유산학과	2			2							4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8	2		2			22	
	영어영문학부					41	2		2			45	
	일본학과					12	2					14	
	중어중문학과	17	2									19	
	철학과					5			2			7	
	사학과					12	2					14	
이과	수학과					13	2					15	
	화학과	15	3									18	
	통계학과					17	2					19	
	물리학과									9	2	11	
법과	법학과					57	4		2			63	
사회 과학	정치외교학전공					16	2		2			20	
	행정학전공	18	2									20	
	북한학전공	5			2							7	
	경제학과	42	2									44	
	국제통상학과	30	2	2								34	
	사회학전공					9	2					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1	2		2							25	
	식품산업관리학과	11	2									13	
	광고홍보학과					21	2		2			25	
	사회복지학과	5			2							7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28	2	30	
경영	경영학과					48	4	2	2			56	
	회계학과					40	2		2			44	
	경영정보학과	27	2	2								31	

대학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정시 모집 계
		수능				학생부 교과	수능			수능			
		일반	기회균형				일반	기회균형			일반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16	2		2								20
	생명과학과	15	2										17
	식품생명공학과						22	2					24
	의생명공학과						15	2		2			19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73	5	2	2								82
	정보통신공학과						37	2		2			41
	건설환경공학과						19	2		2			23
	화공생물공학과						28	2		2			3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4	2		2								28
	건축공학부	23	2										25
	산업시스템공학과	29	2										31
	에너지신소재공학과	17	2										19
AI 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인문 8 자연 87	5	2				102
	시스템반도체학부										17	2	19
사범	교육학과	12											12
	국어교육과	13											13
	역사교육과	12											12
	지리교육과	12											12
	수학교육과	12											12
	가정교육과	13											13
	체육교육과	13											13
예술	불교미술전공												-
	한국화전공												-
	서양화전공												-
	조소전공						15						15
	연극학부												-
	영화영상학과	19	2										21
	스포츠문화학과												-
	한국음악과												-
약학	약학과						10	2		3			15
미래 융합	융합보안학과					1							1
	사회복지상담학과					1							1
	글로벌무역학과					1							1
계		496	36	6	14	3	568	45	4	27	54	6	1,259

■ 2025학년도 『논술전형』

(1) 지원자격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해당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갖춘 자

(2) 전형방법 및 배점

구분		합격배수	전형요소 및 방법			
			학생부		논술	수능최저학력 기준
			교과	출결		
전형방법(%)	일괄	1배수	20	10	70	적용
배점(점)	배점	-	200	100	700	-
	기본점수	-	100	50	350	-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및 적용기준(이내)	비고
인문계열		국어/수학/영어/탐구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자연계열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AI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		수학 포함
	자연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경찰행정학부		국어/수학/영어/탐구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인문/자연 공통
약학과		국어/수학/영어/탐구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 1) 전(全)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없음
- 2) 탐구영역은 2과목 중 상위 1과목만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 대체 없음

(4) 논술고사 개요

출제방식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형태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제시문 기반의 종합적 사고능력(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표현능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고교 교육과정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출제 범위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 사회(역사/도덕포함)교과,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과 - 공통과목, 일반선택, 기하 -
문항 수	3개(영어지문 없음)	3개(소문항 출제 가능)
문항 구성 및 답안 분량	① 문항 2개 : 400자 이내 ② 문항 1개 : 700자 이내	① 문항 2개 : 15줄 이내 ② 문항 1개 : 27줄 이내
고사 시간	100분	90분
대상 모집단위	인문계열 모집단위 경찰행정학부(인문)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자연계열 모집단위 경찰행정학부(자연)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자연)

평가 기준

-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 능력(문제해결력), 논리력, 분석력 등의 종합적 사고 능력, 표현의 정확성(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문항별 평가기준에 따라 7점 척도로 평가
- 3개 문항 배점의 합은 100점이 만점이며, 문항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반영총점(700점)으로 환산

유의사항

응시 관련	- 경찰행정학부(자연) 지원자는 자연계열 논술고사 응시 -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지원자는 인문계열 논술고사 응시
작성 관련	- 답안 작성은 제공된 답안지 1장에 흑색 볼펜만 사용 가능(연필, 샤프 사용불가) - 수정 시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 활용 - 답안지(여백 포함)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표시 금지 - 문항별 지정된 답안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반영단계	교과			출결		
				반영비율	반영총점	기본점수	반영비율	반영총점	기본점수
수시	논술	논술	일괄	20%	200	100	10%	100	50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조기졸업은 2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반영

※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학생부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자는 비교내신 산출

• 교과

-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한국사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총점으로 환산**
- 교과 성적 반영 시 교과별·학년별 반영비율과 각 과목별 이수단위 적용하지 않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97	9.93	9.9	9.8	8.7	7.0	6.0	5.0
1등급 점수와의 차이		-0.03	-0.07	-0.1	-0.2	-1.3	-3.0	-4.0	-5.0

- 산출방법: $[(\sum(\text{등급점수} \div \text{반영과목 수}) \div \text{최대등급점수}(10\text{점}))] \times \text{반영총점}$
- 지정교과별 인정과목 선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교과영역 구분이 없거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목명을 기준으로 반영

• 출결

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환산점수	10	9.4	8.8	8.2	7.6	7	6.4	5.8	5

- 「결과·지각·조퇴」의 미인정·무단(사고)는 3회당 결석 1일로 반영(소수점 이하는 절사)
-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 학생부 반영 불가 대상자 비교내신 산출

비교내신 적용대상	적용방법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 국외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석차등급 산출불가능한 자 - 반영과목수가 10과목이 되지 않는 자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특징 및 유의사항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출제 원칙은 “고교교육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나 내용은 배제하며, 영어지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즉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해왔습니다.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역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출제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주요 특징은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의 지문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문이 6~12개로 읽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글의 종류가 설명문, 논설문 등으로 다양하고, 다루고 있는 제재가 인문, 사회, 자연, 철학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비교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 ②중심화제에 대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③견해나 대안 제시 등입니다. 외연적으로는 3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지만, 주어진 논점을 토대로 추론하여 요구에 맞는 답을 제시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②와 ③의 비중과 배점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이나 정형화된 답안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 사회, 문화, 고전 등에 걸친 다양한 독서 경험을 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각 지문을 아우르는 공통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논지를 풀어내는지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논술고사 유의사항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인문 I 과 인문 II 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인문 I 과 인문 II 간 기출 방향의 차이는 없고, 지원인원을 고려해 시간대를 안배한 것입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사시간은 100분입니다. 작성 분량은 총 1,500자 이내로, 두 문항은 250~400자, 한 문항은 550~700자입니다. 제시문의 양이 많은 편이므로, 100분의 시간 동안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지를 숙지하여 답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2015개정 수학교과와 공통과목, 일반선택, 기하과목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주요 특징은 제시문을 통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확장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문화 현상 등을 접목시켜 단순히 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논술고사 유의사항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은 **풀이과정 중심의 수학 3문항(소문항 출제 가능)**으로 출제됩니다. 이에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기본개념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2개의 문항은 15줄(250자~400자) 정도의 답안을, 1개 문항은 27줄(550자~700자) 정도의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답안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출문제를 통해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문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및 논술고사 관련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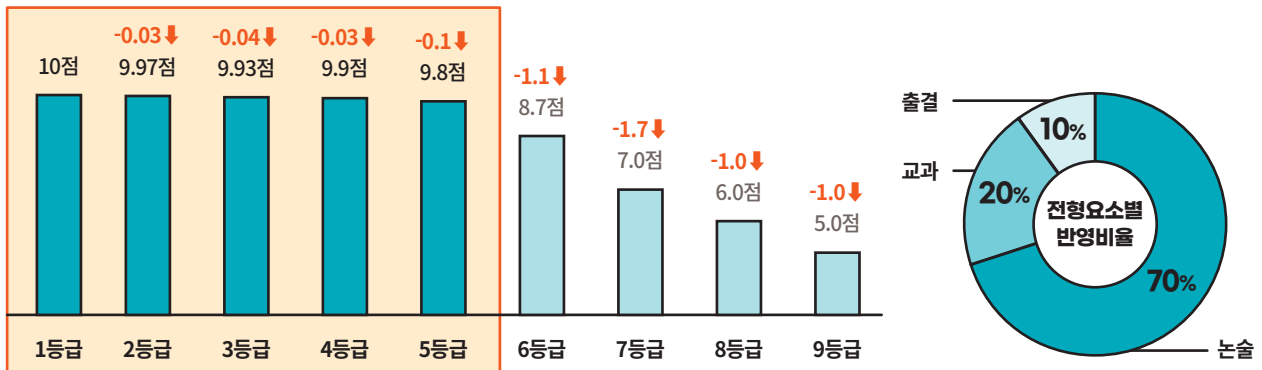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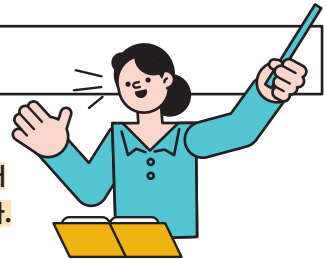


Q1. 논술전형에서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출결 10%)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계열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이며 고등학교 3년 동안 해당 교과목 중에서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교과성적 반영 시, 교과별/학년별 반영비율과 과목별 이수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그밖에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Q2. 교과 성적이 낮는데 합격에 불리하지 않나요?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비율은 20%이며 기본 점수가 100점 만점 중 50점을 차지합니다. 또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교과목 중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 하기에 등급별 점수가 1~5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교과의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다.



Q3. 수능을 잘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합니다. 수능성적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수능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Q4. 인문 I 과 인문 II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문계열 논술은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고사 시간대별로 인문 I 과 인문 II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출제 방향 및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 I 과 인문 II는 문제만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논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인문 I 과 인문 II 기출문제를 두루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5.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인문계열/경찰행정학과 자연계열에 지원한다면, 논술은 어떤 유형으로 봐야 하나요?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인문계열로 지원할 경우 인문계열 논술,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에 지원할 경우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6. 논술고사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니까?

출제위원장 1명, 문제유형별(인문 I, 인문 II, 자연)로 각각 3명의 출제위원과 2~3명의 문제검토위원이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출제가 진행됩니다. 이때 문제검토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모든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출제자료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활용됩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한 참고자료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특정 교과에서의 단순 암기 위주식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고 응용하기에 적합한 제시문을 선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합니다.



Q7. 논술고사 답안 평가 시 평가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논술 답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과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는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어(키워드)의 유무를 통해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분석력, 추리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집니다.

Q8. 답안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하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연필이 아닌, 검정색 볼펜만 가능합니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에 의해 수정 가능합니다. 고사에 응시하시기 전에 **원고지 교정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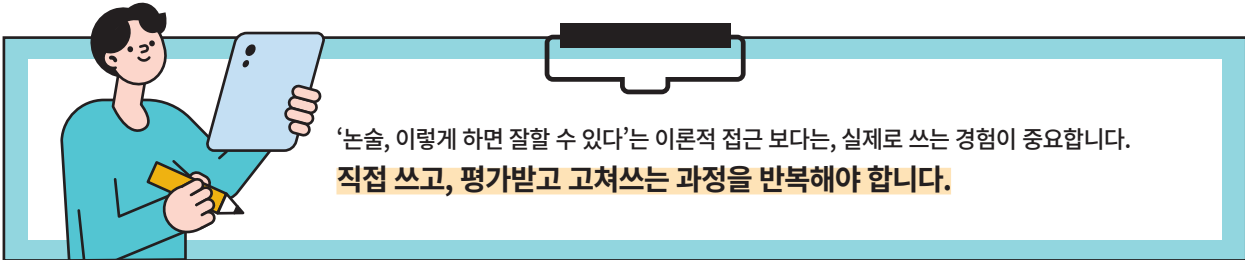


Q9. 논술 답안 평가 시 글씨체와 맞춤법이 영향을 미치나요?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당 답안의 내용입니다. 즉, 글씨체가 예쁘지 않더라도, 작성한 답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평가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글씨체가 엉망이거나 맞춤법의 오류가 많다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논술 작성 TIP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실력을 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 사전준비

• 출제유형을 철저히 익힙시다!

논술 전형에 대한 주요사항, 특징,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불어 기출문제를 꼭 훑어보면서 어떤 발문으로 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고사 중 시간 안배와 문제의 요구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실전 연습을 통해 고사 당일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 평가 기준을 파악합시다!

평가위원은 어떻게 그 수많은 답안지를 평가할까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답안을 점검해보세요.

■ 논제를 꼼꼼히 체크한다!

• 논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논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시문을 파악해보자.

• 논제에 쓰인 명령어에 주목하자.

✓ 논술하라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라
✓ 분석하라	핵심개념이나 주제를 요소로 나누고, 그것들의 의미와 관계를 밝혀라
✓ 요약하라	주장, 핵심내용, 주요 논거를 정리하라
✓ 비교(대조)하라	두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 비판하라	어떤 주장의 타당성이나 가치 등을 평가하라
✓ 설명하라	사실, 주장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

■ 훌륭한 답안이 갖는 특징

- 짧고 간결한 문장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도록 한다.
- 번역투의 문장은 피한다.
-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추어라.
-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금물이다.(특히 요약의 경우)
- 부적절하고 맥락이 맞지 않는 ‘지식 과시용 인용’은 역효과로 작용한다.
- 천편일률적인 대안 제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 동어반복,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진술과 문구는 삼가한다.
- 과격하고 지나친 단정은 위험하다.
-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필체로 작성한다.

2024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2024.01. 기준 합격자 자료이므로 정확한 전형결과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지원현황

- **실경쟁률이란?** 논술고사 응시자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간의 경쟁률을 의미합니다.
- **충원률이란?** 모집인원이 10명이고 충원률이 50%라고 한다면, 충원합격자는 5명임을 의미합니다.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어, 경쟁률과 실경쟁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24학년도 모집인원	23학년도 모집인원	2024학년도 전형결과			
					지원인원	경쟁률	실경쟁률*	충원률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412	68.67	23.67	17%
		영어영문학부	10	10	695	69.50	26.90	20%
		일본학과	5	5	315	63.00	20.60	60%
		중어중문학과	5	5	315	63.00	21.80	60%
		철학과	5	5	318	63.60	22.60	20%
		사학과	4	4	257	64.25	21.75	25%
	법과	법학과	15	15	1,125	75.00	25.67	13%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396	66.00	22.50	33%
		행정학전공	6	6	374	62.33	18.17	17%
		국제통상학과	12	12	806	67.17	23.00	1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386	77.20	24.60	20%
		광고홍보학과	6	6	458	76.33	20.83	0%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802	53.47	12.73	40%
	경영	경영학과	18	18	1,329	73.83	23.11	22%
		회계학과	13	13	773	59.46	17.85	0%
		경영정보학과	10	10	625	62.50	17.70	20%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4	4	287	71.75	19.00	0%
	사범	교육학과	5	5	314	62.80	23.80	20%
	인문 전체				9,987	66.58	21.25	-
자연	이과	수학과	4	4	77	19.25	3.75	50%
		화학과	4	4	84	21.00	4.25	25%
		통계학과	4	4	78	19.50	5.75	0%
		물리학과	3	7	59	19.67	2.67	0%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122	24.40	5.00	0%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4	4	90	22.50	4.75	0%
		생명과학과	4	4	91	22.75	4.25	0%
		식품생명공학과	5	5	105	21.00	5.20	20%
		의생명공학과	4	4	99	24.75	7.00	75%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5	26	810	32.40	9.68	12%
		정보통신공학과	13	13	351	27.00	7.46	23%
		건설환경공학과	7	7	169	24.14	5.29	0%
		화공생물공학과	7	7	207	29.57	8.57	0%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7	316	26.33	6.58	8%
		건축공학부	5	5	167	33.40	8.60	0%
		산업시스템공학과	7	7	199	28.43	7.00	14%
		에너지신소재공학과	6	6	150	25.00	8.50	33%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자연)	21	22	793	37.76	11.00	29%
		시스템반도체학부	4	-	94	23.50	6.00	25%
	사범	수학교육과	5	5	78	15.60	4.00	60%
	약학	약학과	5	6	1,622	324.40	67.20	0%
	자연 전체				5,761	37.41	9.40	-
논술전형 전체				15,748	51.80	15.24	-	

■교과성적

- **주요 교과 내신 등급 평균이란?**
-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의 등급 산술평균을 의미합니다.
- **상위 10과목 내신 등급 평균이란?**
- 지원자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산술평균 등급을 의미합니다.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의 주요 특징은 교과 등급의 실질 반영 정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 ☑ **논술점수와 교과등급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평가 시 교과등급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24학년도 모집인원	23학년도 모집인원	주요 교과 내신 등급 평균			상위 10과목 내신 등급 평균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4.25	5.4	0.72	2.90	4.3	0.88
		영어영문학부	10	10	4.20	5.6	0.97	3.09	4.3	0.81
		일본학과	5	5	4.18	5.3	0.70	2.85	3.8	0.64
		중어중문학과	5	5	4.84	6.1	0.95	3.60	4.4	0.66
		철학과	5	5	4.10	5.3	0.89	2.88	4.6	1.16
		사학과	4	4	4.47	5.4	0.93	3.07	4.3	0.95
	법과	법학과	15	15	4.33	6.7	1.20	3.24	5.5	1.09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3.53	4.4	0.82	2.47	3.5	0.85
		행정학전공	6	6	4.20	5.1	0.66	3.03	3.9	0.68
		국제통상학과	12	12	3.78	5.0	0.81	2.67	3.8	0.8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3.38	4.0	0.57	2.18	3.2	0.71
		광고홍보학과	6	6	4.50	6.0	1.19	3.35	4.9	1.25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4.12	5.7	0.98	2.96	4.7	0.97
	경영	경영학과	18	18	4.21	5.6	0.87	3.06	4.5	0.83
		회계학과	13	13	4.62	6.3	0.95	3.48	4.8	0.83
		경영정보학과	10	10	4.26	5.6	0.89	3.12	4.4	0.85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4	4	3.93	4.1	0.17	2.70	3.0	0.22
	사범	교육학과	5	5	3.62	4.4	0.39	2.50	3.1	0.31
	인문 전체				4.17	6.7	0.96	3.01	5.5	0.93
자연	이과	수학과	4	4	4.40	6.4	1.22	3.03	4.6	0.94
		화학과	4	4	3.78	4.3	0.54	2.73	3.3	0.58
		통계학과	4	4	3.85	5.1	0.88	2.83	4.3	1.03
		물리학과	3	7	3.87	4.4	0.45	2.87	3.4	0.41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3.16	3.9	0.56	2.24	2.8	0.43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4	4	3.70	4.3	0.46	2.73	3.7	0.63
		생명과학과	4	4	3.73	5.2	0.93	2.73	4.1	0.89
		식품생명공학과	5	5	4.04	5.0	0.55	2.92	3.6	0.46
		의생명공학과	4	4	3.98	4.9	0.69	3.08	3.7	0.45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5	26	4.18	6.6	0.92	3.09	4.9	0.79
		정보통신공학과	13	13	3.85	4.9	0.72	2.73	3.9	0.68
		건설환경공학과	7	7	4.13	5.0	0.72	3.17	4.0	0.68
		화공생물공학과	7	7	3.87	5.1	0.60	2.86	4.6	0.81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7	3.73	5.0	0.79	2.64	4.1	0.82
		건축공학부	5	5	4.16	4.6	0.26	3.16	3.7	0.31
		산업시스템공학과	7	7	3.91	4.7	0.58	2.74	3.7	0.63
		에너지신소재공학과	6	6	3.88	5.3	1.08	3.00	4.4	1.14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자연)	21	22	4.07	5.8	0.95	3.07	5.0	0.90
		시스템반도체학부	4	-	3.63	3.9	0.29	2.60	3.3	0.50
	사범	수학교육과	5	5	4.32	5.8	1.16	3.02	4.7	1.26
	약학	약학과	5	6	2.73	3.4	0.62	1.43	1.8	0.33
	자연 전체				3.93	6.6	0.86	2.87	5.0	0.83
	논술전형 전체				4.05	6.7	0.92	2.94	5.5	0.88

■ 논술고사 점수

-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 I, 인문 II, 자연**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습니다.
- 인문 I 과 인문 II 는 시간대 차이일 뿐이며, 문제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 해당 수치는 참고용일뿐, 절대적 수치는 아닙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24학년도 모집인원	23학년도 모집인원	논술 유형	논술고사 점수					
						지원자			최종등록자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인문Ⅱ	81.92	50.75	4.16	89.11	88.21	0.82
		영어영문학부	10	10	인문Ⅱ	82.54	60.36	4.07	89.50	88.13	0.80
		일본학과	5	5	인문Ⅱ	83.17	71.01	3.52	89.64	88.75	0.77
		중어중문학과	5	5	인문Ⅱ	82.52	54.17	4.84	89.39	88.55	0.79
		철학과	5	5	인문Ⅱ	82.27	62.51	4.52	90.07	88.84	1.41
		사학과	4	4	인문Ⅱ	81.81	51.84	4.63	89.51	88.33	1.42
	법과	법학과	15	15	인문Ⅱ	82.48	50.69	4.47	90.92	89.36	0.99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인문Ⅰ	79.91	50.41	4.78	86.69	85.74	0.92
		행정학전공	6	6	인문Ⅰ	80.08	50.41	4.65	85.35	84.19	0.95
		국제통상학과	12	12	인문Ⅰ	80.84	50.00	4.43	87.86	85.86	1.8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인문Ⅰ	80.26	52.02	5.04	87.81	87.12	0.76
		광고홍보학과	6	6	인문Ⅰ	80.59	63.18	3.97	88.43	87.74	0.72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인문Ⅱ	82.48	67.05	3.96	88.72	87.23	1.10
	경영	경영학과	18	18	인문Ⅰ	80.43	50.00	4.86	87.70	86.34	1.25
		회계학과	13	13	인문Ⅰ	79.86	51.24	4.53	86.26	84.66	1.37
		경영정보학과	10	10	인문Ⅰ	81.14	59.77	4.22	87.19	86.83	0.27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4	4	인문Ⅱ	80.65	52.17	5.20	85.93	85.64	0.32
	사범	교육학과	5	5	인문Ⅱ	83.33	52.17	4.58	89.14	88.53	0.53
	인문 전체					81.41	50.00	4.60	88.30	84.19	1.84
자연	이과	수학과	4	4	자연	73.45	52.02	7.52	81.15	77.59	2.61
		화학과	4	4	자연	71.94	55.87	6.93	80.08	79.25	1.13
		통계학과	4	4	자연	75.10	60.95	6.55	86.31	82.31	5.23
		물리학과	3	7	자연	71.68	63.44	5.84	79.09	72.89	4.42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자연	72.11	54.80	5.86	81.33	78.01	2.80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4	4	자연	69.82	59.78	6.60	79.79	77.55	3.22
		생명과학과	4	4	자연	70.18	52.02	7.19	79.63	77.10	2.76
		식품생명공학과	5	5	자연	72.10	57.02	6.25	80.05	78.47	1.10
		의생명공학과	4	4	자연	69.51	52.02	7.40	78.68	76.35	2.11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5	26	자연	72.33	52.02	6.37	84.45	80.79	4.32
		정보통신공학과	13	13	자연	71.51	52.22	6.37	82.07	78.10	4.51
		건설환경공학과	7	7	자연	71.92	52.22	5.94	79.95	77.90	1.86
		화공생물공학과	7	7	자연	71.76	57.01	6.04	81.65	79.47	2.84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7	자연	72.04	52.36	7.34	83.47	80.08	3.81
		건축공학부	5	5	자연	71.94	52.36	7.38	81.71	80.11	2.10
		산업시스템공학과	7	7	자연	72.03	56.17	6.96	82.00	79.33	2.12
		에너지신소재공학과	6	6	자연	72.59	56.45	6.99	82.93	80.83	1.97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자연)	21	22	자연	72.60	52.00	7.43	83.01	81.53
		시스템반도체학부	4	-	자연	71.65	52.00	7.97	80.92	78.99	1.59
	사범	수학교육과	5	5	자연	70.74	50.62	8.11	76.51	75.25	1.26
	약학	약학과	5	6	자연	73.02	50.00	7.01	92.47	90.30	1.18
	자연 전체					72.29	50.00	6.95	82.40	72.89	4.10
논술전형 전체					78.52	50.00	6.92	85.31	72.89	4.35	

■수능 등급 평균

$$\text{수능 등급 평균} = \frac{\text{국어} + \text{영어} + \text{수학} + \text{탐구1} + \text{탐구2}}{5}$$

-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지원자의 수능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 지원자의 수능 성적으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합니다.
- ☑ 논술점수와 수능 성적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평가 시 수능 성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논술고사 응시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최종합격자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3.89	7.0	0.88	3.34	5.4	0.55	2.99	3.6	0.38
		영어영문학부	3.76	7.0	0.79	3.40	5.6	0.58	3.48	5.2	0.72
		일본학과	3.88	6.2	0.77	3.43	5.0	0.58	3.52	5.0	0.89
		중어중문학과	3.85	6.5	0.78	3.42	4.8	0.54	3.76	4.2	0.37
		철학과	3.71	7.0	0.82	3.29	5.0	0.54	3.28	3.8	0.39
		사학과	3.85	7.0	0.80	3.30	4.8	0.50	3.25	3.4	0.17
	법과	법학과	3.75	6.8	0.87	3.22	5.6	0.54	3.24	3.8	0.45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3.81	7.2	0.83	3.36	5.4	0.57	3.40	3.8	0.42
		행정학전공	3.87	7.2	0.90	3.25	4.8	0.55	3.03	3.4	0.35
		국제통상학과	3.75	6.8	0.78	3.28	4.8	0.49	3.23	4.0	0.4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3.90	7.4	0.95	3.28	4.6	0.51	3.24	3.8	0.34
		광고홍보학과	3.87	6.8	0.82	3.40	5.6	0.61	3.20	3.4	0.16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인문)	3.45	7.0	0.87	2.89	4.2	0.43	3.00	4.2	0.37
	경영	경영학과	3.71	7.0	0.79	3.28	5.2	0.53	3.13	4.0	0.54
		회계학과	3.75	7.4	0.82	3.28	5.0	0.56	3.38	4.4	0.54
		경영정보학과	3.86	7.0	0.86	3.29	4.8	0.55	3.04	3.4	0.32
	AI융합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	3.27	5.8	0.78	2.82	4.4	0.45	2.95	3.2	0.22
	사범	교육학과	3.72	6.6	0.79	3.30	4.4	0.46	3.08	3.4	0.39
	인문 전체			3.75	7.4	0.84	3.27	5.6	0.55	3.22	5.2
자연	이과	수학과	3.80	6.4	0.77	3.25	4.2	0.51	3.15	3.6	0.36
		화학과	3.97	6.6	1.01	3.16	3.8	0.40	3.05	3.8	0.61
		통계학과	3.61	5.2	0.66	3.40	5.2	0.64	3.20	4.0	0.47
		물리학과	3.89	5.0	0.51	3.40	4.0	0.36	3.33	3.6	0.25
	경찰사범	경찰행정학부(자연)	3.37	5.2	0.67	2.95	3.4	0.35	2.88	3.2	0.37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환경과학과	3.77	5.2	0.82	3.29	4.6	0.59	3.35	3.8	0.38
		생명과학과	3.92	5.8	0.84	3.35	4.8	0.48	3.65	4.8	0.70
		식품생명공학과	3.63	5.2	0.64	3.23	4.2	0.43	3.32	4.0	0.37
		의생명공학과	3.69	6.2	0.83	3.24	4.6	0.49	3.35	4.6	0.73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3.54	6.4	0.78	3.11	4.6	0.46	3.19	4.6	0.57
		정보통신공학과	3.67	6.4	0.75	3.28	5.6	0.56	3.60	5.6	0.81
		건설환경공학과	3.63	5.6	0.70	3.19	4.6	0.47	3.40	4.4	0.52
		화공생물공학과	3.52	7.2	0.80	3.19	4.2	0.40	3.34	4.2	0.56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3.58	6.0	0.71	3.18	4.6	0.47	3.13	3.8	0.47
		건축공학부	3.75	6.2	0.81	3.19	4.0	0.37	2.85	3.2	0.22
		산업시스템공학과	3.62	5.2	0.67	3.16	4.6	0.49	3.03	4.0	0.48
		에너지신소재공학과	3.49	6.8	0.86	3.10	4.6	0.47	3.00	3.6	0.40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자연)	3.51	6.6	0.78	3.08	4.6	0.49	3.17	4.0	0.52
	AI융합	시스템반도체학부	3.60	6.0	0.81	3.05	4.2	0.52	2.95	4.0	0.79
		사범	수학교육과	3.80	6.6	1.00	3.26	4.4	0.62	3.20	4.2
	약학	약학과	2.11	7.2	0.78	1.68	4.0	0.31	1.64	1.8	0.08
	자연 전체			3.25	7.2	1.00	2.81	5.6	0.77	3.17	5.6
논술전형 전체			3.60	7.4	0.92	3.13	5.6	0.66	3.19	5.6	0.57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33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37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41 2023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45 2023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49 2022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53 2022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57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62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67 2023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71 2023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75 2022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80 2022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DONGGUK UNIVERSITY

논술전형 가이드북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집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획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결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이었 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하종오, 「원어(原語)」)

- 『고등학교 국어』

[나]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 대지의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무생물과 식물, 곤충, 각종 동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

*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수신과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1

제시문 [나], [다], [라]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시를 해석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신의 근무 태도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을 더 잘 알고 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을 감출 유인이 있고,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속성을 감출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시장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 『고등학교 경제』

[나]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자의 가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국가 금융 제도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험 제도’를 실행한다. 이는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1997년 외환 위기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래 예금자 보호 제도가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되 부실 금융 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것이다.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올렸는데 이후 저축 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축 은행의 보장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 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 『고등학교 경제』

[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를 더 가진 사람이 정보를 덜 가진 사람에게 신호 보내기를 통해 사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상이 일정 기간 수리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차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또한 정보를 덜 가진 사람은 정보를 더 가진 사람에게 골라내기를 통해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 예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중고차 판매상에게 품질 검사서를 요구하거나 건강 보험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 『고등학교 경제』

[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보험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거나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는 것, 자동차 보험 회사가 과거의 교통사고 통계를 근거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 2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보험 가입자인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 [가]에서 찾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나]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문 [다]와 [라]를 참조하여 제시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갈통(J.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통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앞부분 줄거리-‘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 가족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아 간다. ‘나’ 역시 두 사람의 아들 ‘투이’와 친구가 된다. 어느 날 학교에서 2차 대전에 대해 배우던 시간에 투이는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전쟁은 없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아닌데요’라고 말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이 다 죽었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투이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투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만다. 결국, 반장 ‘잉가’가 베트남전에 대해 말하고 선생님은 반장을 칭찬하면서 베트남전은 미국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투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애를 앞에 두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한다. ‘나’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투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 애가 교실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 것처럼 느끼며, 독일 애들에게 분노마저 느낀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투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못 들은 척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아빠는 한국어로 ‘나’를 야단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독일어로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라고 한다. 그때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 버린다. 응웬 아줌마는 투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넌 신경 쓸 것 없어.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투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응웬 아줌마는 호 아저씨에게 베트남으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의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아빠는 엄마와 호 아저씨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당신도 무슨 말 좀 해 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얘길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뭔데?” 아빠가 한국어로 받아쳤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응웬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놓았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생략)

“전쟁이었습시다.”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 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투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생략)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라는 마음이 그날 밤,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았다. 그건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이었다.

(뒷부분 줄거리-엄마는 투이네 가족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 번 뒤틀린 관계는 바로잡을 수 없었다. ‘나’의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엄마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해, 엄마와 꼭 닮은 서른 셋의 ‘나’는 독일에 가서 응웬 아줌마를 만나 ‘신짜오, 신짜오’ 인사를 나눈다.) * 신짜오: 베트남어로 ‘안녕’이라는 뜻.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 『고등학교 문학』

[다] (앞부분 줄거리-아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간다. 사교적인 대화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던 아내 앞에 쇠고기를 버무린 탕평채가 나오자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저는 안 먹을게요.”라고 말한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자 아내는 좀더 큰 소리로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말한다. 결국,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라는 사장의 말과 함께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간다.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최선이다. 사상체질과 같은 채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화제로 오가던 중, 채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끊고 ‘나’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략)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와 나에게는 들렸다.

“뭐하는 짓이나,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 서방은 어찌란 말이나?”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의 국 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장인 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년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남 일꾼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 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뒷부분 줄거리-처형네에서 장인은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장모는 고기를 먹이려고 시도한다. 한 약한 모금을 마시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한 그녀는 ‘나’가 잠든 사이 병원 앞 벤치에서 새를 쫓 채 발견된다.)

(한강, 「채식주의자」)

- 『고등학교 문학』

[라] 요나스(H. Jonas)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이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요나스가 강조한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미래세대의 존속이 현 세대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미래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소설 속의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가]의 주장을 통해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를 읽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나]와 [다]의 인물 간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술하시오.

<550~700자> [40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속 가능한 사회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이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기후 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다. 기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 대기 구성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산화 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삼림의 파괴 또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다]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어렵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산업별로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서 쓸 수 있도록 도입한 시장 제도이다.

- 『고등학교 정치와 법』

[라]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의 비정부 기구(NGO)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또한 비정부 기구는 정부의 환경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마] 얼마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휴지 보관함 위에 붙어 있는 공익 광고를 보았다. 거기에 쓰인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라는 문구를 보고 순간 뜨끔했다. 휴지를 마구 쓰는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평소에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아무 생각 없이 휴지나 손 건조기를 써 왔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손의 물기를 닦을 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휴지나 손 건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과연 괜찮을까? 많은 사람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손 건조기를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손수건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던 지금까지의 습관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은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등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고등학교 국어』

문제 1

제시문 [가]를 통해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 [라], [마]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자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함[仁者愛人也]과 사람다움[仁者人也], 즉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이자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효(孝), 제(悌), 충(忠), 신(信)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효와 제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보고 매우 중시하였다.

그래서 효제(孝悌)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忠恕)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서’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推己及人]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유교에서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했고, (……)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특히 강조하였다. 유교의 윤리 사상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수양해 나감과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修己安人]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을 군자(君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의 윤리 사상은 인격 완성을 중시하고,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 제도나 구조가 필수적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더라도 사회 제도가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공정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는 행복한 삶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사회는 권리, 의무, 소득, 기회, 명예, 직위 등과 같이 한정된 재화를 놓고 벌이는 구성원 간의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근로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학생은 응당하게 받아야 할 점수, 범죄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등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받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 사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될 때 기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 응분의 몫: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마] 초나라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는데,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논어』)

제자인 동응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인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맹자가 대답하였다. “순임금은 천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맹자』)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유교의 윤리사상을 통해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고, [다]와 [라]에 제시된 현대적 관점에 근거하여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 주장을 비판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민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된다. 이때 시민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유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유의 바탕에는 개인은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 개인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또한, 나는 이 씨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단,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교정해야겠지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마] 드디어 드레퓔스가 군사 법정에서 석방되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물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면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에는 오직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퓔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유대인’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는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군적 박탈식: 군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의식.

* 날조(捏造)-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다.

* 기소장(起訴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고등학교 독서』

[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자비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시민들의 안위만큼은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레 시는 철저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프랑스 북부에서 온 칼레의 사절이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백년 전쟁(1337~1453), 그 초기에 칼레 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이나 영국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 냈다. 그러나 영국군의 방어 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칼레 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하자, 칼레 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윌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이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뉘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요.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에 죽음이 두렵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슬프고 괴롭지만, 오로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들의 행동은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현, 『이주현의 프랑스 미술 기행』)

*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 사자(使者):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 굴욕감(屈辱感):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으며 느끼는 창피한 느낌.

* 부지(扶持/扶支)할: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감.

* 자괴감(自愧感):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 구차(苟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함.

- 『고등학교 독서』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으로,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토대로 [마]와 [바]의 상이한 정의관(正義觀)을 추론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하시오.

<500~700자> [40점]

2023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또한 언어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었는데,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음성과 문자,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이며, (……)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도 한다. (……) 인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해 왔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기술 발달과 함께 매체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매체는 또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나]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Tylor, E. B.)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전체이다.”라고 하였다. (……) 문화는 다음의 여러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양식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 이를 ‘문화의 공유성’이라 한다. 둘째,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하여 습득된다. 이를 ‘문화의 학습성’이라고 한다. 셋째,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나 내용, 의미 등이 변화한다. 이를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한다. 넷째,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한 세대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 문화적 축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적의 과정을 통해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의 문화는 지식, 가치, 예술, 규범, 제도 등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문화 요소는 별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문화의 총체성’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우리는 정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이다. 따라서 매체를 통한 언어생활을 할 때 매체 자료의 신뢰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언어 규범 및 윤리 파괴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비윤리적 언어 사용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음절 수가 많은 긴 단어를 간단히 말하기 위해 몇 음절만 따서 줄여 말하고, ‘깜놀’, ‘심쿵’, 심지어 ‘ㅇㅋ’과 같이 음운만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할 때 새로운 줄임말을 많이 만들어 내고, 그러한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한다. 이러한 말들은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상대가 그 말의 뜻을 잘 모른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때로는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행이 지난 줄임말을 쓰는 상대방에게 ‘극혐’이라고 말하며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문제 1

제시문 [라]에 나타난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용 현상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와 [나]를 참조하여 네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그리고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의사소통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수요자인 동시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역할을 한다. (……)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을 통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 (……)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과거보다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 기업가 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 과감한 도전 정신,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한다. (……)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경제』,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현대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적 속고의 간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하였다.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과학 기술의 영향에 대한 이성의 도덕적 속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생기는 간격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성적 인간(Homo Sapiens)에 대한 도구적 인간(Homo Faber)의 지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오늘날 인공 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달로 크게 도약하였다. 인간의 두뇌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일종의 규칙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데, 딥러닝은 이러한 정보 처리 방식을 기계에 적용한 기술이다. 이로써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학습’이 가능해졌다. 현재 번역, 음성 인식, 의료 분야 등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공 지능의 진화는 기계가 인간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래에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이 왔을 때 도리어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놓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사』

[라] 유전자 재조합(GMO) 농산물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면 추위, 병충해,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한 후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만든 새로운 농산물을 말한다.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은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과 생물 종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한 상품을 소비해 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하는 항만, 도로, 교통 시설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은 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사회에서 가져야 할 일정한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순히 법적·경제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인 책임까지 고려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다. (……)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 등도 포함된다. (……) 기업은 고용차별, 불합리한 해고, 환경 오염 등 다른 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 고용, 낙후된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예술 및 교육 사업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고등학교 경제』,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2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 [나]의 내용과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느 날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을 인터뷰했다. 그 아저씨는 수년 동안 한 달에 2만 원가량 기부해서 국무총리상을 타게 되었는데 정작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저씨! 그날 근무 바빠 줄 사람이 없어서 시상식에 못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한사코 그건 상을 탈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씩씩 씩씩 어눌하게 이어졌던 아저씨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좁디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이 방법 말고 어떻게 우주를 꿈꾸겠어요? 어떻게 우주의 한 귀퉁이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좁은 곳에 앉아서 어떻게 우주를 꿈꾸나?’란 말을 들은 나는 <레 미제라블>을 생각했다. <레 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 시가전 장면에서 바리케이드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새벽이 밝아 오면 곧 모두 죽을 것이다. (……) 다들 내가 나가겠다고 아우성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모두 자신이 죽겠다고, 기왕 죽을 거면 훌륭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말한다. (……) 일상에 매여 살면서 인간성에 대해 별다른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 때조차 우리는 어떤 믿음에 은밀히, 그러나 한사코 매달린다. 우리 에겐 모두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믿음들이 있다. 경비원 아저씨가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우주를 꿈꿨듯 나도 침대에서 <레 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포기하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인류에 대한 믿음에 가까이 가 볼 수 있었다.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현실에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 ‘레 미제라블’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위고는 매춘부, 억울한 도둑, 굶주린 하층민 계급에 대해서만 말하려 했던가? 공원에 며칠 째 굶주린 어린 두 형제가 있다. 그곳에 자기 삶은 올바르다는 확신에 가득 찬 중산층 시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다. 아들 손에는 빵이 있다. 배가 부른 아들은 호수의 백조들에게 빵을 던져 준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사라지자 형은 동생을 위해 호수에서 물에 젖은 빵을 건져내 두 조각으로 나누고 큰 것은 동생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 이 부분 바로 앞에 위고가 쓴 말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 사람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을 찬미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 장 발장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것도 단 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양심에 관련된 이야기다. 코앞에 다가온 행복조차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포기할 때 그는 “나는 레 미제라블이에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레 미제라블의 의미가 바뀌어 버린다. 그들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진리와 정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다. 빵 한 쪽을 나눠 더 큰 반쪽을 동생에게 주는 형, 비참함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장 발장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다. 나는 레 미제라블이에요! 이 말은 위대한 인간 선언인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3년 2월 1일-

- 『고등학교 국어』

[나] 오늘날 국가는 국민 주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며, 국민의 도덕성과 시민성을 고양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비로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 버렸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를란데르(Erlander, T., 1901~1985)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그는 23년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그 사이 파업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과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 수당, 전 국민 무상 의료보험,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 주택 수당법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으며 모두가 수감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스웨덴은 국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동자 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에를란데르 총리는 1969년 정치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그에게는 여생을 보낼 자기 집 한 채도 없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사고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느 한 국가의 구성원이 이전에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깨닫는다면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재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어렵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과 국가가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한 세대의 필요를 충족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마] 범지구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 복지 측면이나 민주주의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20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20%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의 대다수는 실업자 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우려 음식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뿜어내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 나가야 한다. 이들 대다수는 소수가 생산해 내는 부에 의존하여 먹고 살아야 한다. 분명 이것은 지구촌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세계화의 덫』 -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3

제시문 [가]에서 ‘위대한 인간 선언’이 의미하는 것과 그것이 위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나]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국가(스웨덴)의 정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리고 앞에서 답한 내용과 [라]를 활용하여, [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550~700자> [40점]

2023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나 도덕 등을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탈 행동이라고 한다. 즉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다.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 또한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장소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이처럼 일탈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상대성을 지닌다.

일탈 행동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일탈 행동은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 조직이 해체되고, 사회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일탈 행위를 통제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탈 행동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일탈 행동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적된 욕구 불만을 해소해 줌으로써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무질서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일탈 행동은 사회 조직의 결함이나 사회 문제를 표면화하여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탈 행동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을 파악하고 극복함과 동시에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카니발(Carnival)은 ‘사육제’, 즉 음식에 감사하는 축제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 음식을 금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축제이다. 현대의 사육제들은 애초의 종교적 의미가 퇴색되면서, 가면이나 화장으로 분장하고 기괴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나 대형 인형들을 앞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 중심의 축제로 바뀌었다.

과거 신분제 시대에는 사육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모든 일이 허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하인은 주인이 되고, 주인은 하인이 되어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규율이 뒤바뀌었다. 그리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녀 모두는 서로 알아볼 수 없도록 가면, 가발, 짙은 화장, 화려한 옷과 장식 등을 하였고, 귀족과 서민은 서로의 신분을 숨기면서 일탈의 즐거움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부현(傅玄)이 편찬한 『태자소부잠(太子少傅箴)』에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주위 환경이나 친구의 성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훌륭한 스승이나 모범적인 친구를 만나면 그 행실을 보고 배워 자연스럽게 스승이나 친구를 닮게 되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일깨운 고사성어이다.

또한, 공자가 말한 ‘지란지교’는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도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악취는 맡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동화되어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아노미 상태에서 찾는다. 뒤르켐(Durkheim, E.)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

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무규범 상태가 나타나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머튼(Merton, R. K.)은 부와 명예 등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을 때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차별 교제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일탈 행동의 방법과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일탈 행동 여부는 어떤 사람들과 주로 상호 작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일탈 행동의 의미가 있는 행동은 없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또한, 개인이 일탈 행위자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이다. 특정 개인의 1차적 일탈에 대하여 사람들이 낙인을 찍으면 그의 행동 선택의 자유가 위축되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2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1

제시문 [가]를 근거로 [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기능을 서술하고, [라]를 참고하여 [다]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고,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재는 언제든지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공공재의 생산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데도 시장에서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재 생산에 자원이 필요한 만큼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고등학교 경제』

[나]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려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정한다고 하자. 각 사람이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 써서 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써서 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게 된다. 어떤 사람이 표 1장을 흰색 상자(개인)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천 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표 1장을 푸른색 상자(공공)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백 원씩 받게 된다.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실험이 끝난 후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그런데 내가 50장 전부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내가 얻게 되는 돈은 2만 5천원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 모두 2만 5천원씩의 돈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1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 5백원씩의 돈이 생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진 표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이르는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등학교 독서』

[다] 13종의 핀치(finch)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 『고등학교 독서』

[라] 공동체주의에서는 정의를 공동체 가치와 연관 지어 바라본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할 때 좋은 삶을 살아가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즉 공동체는 공동체 속의 개인이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배려와 사랑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장려해 왔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다]와 [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담론 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중시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버마스는 공론장이야말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보았다. (……) 시민이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대표자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흄(D. Hume, 1711~1776)에 따르면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성의 능력인 지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성은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감정만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활동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들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감정들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이다. 따라서 개인이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하면 개개인의 만족감이 커지므로 사회 전체의 효용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각자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 규범을 어겨 문제가 되기도 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세대 간 정의 문제란 현재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해 어떠한 도덕적·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세대 간 정의의 문제들 중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축소되는 것을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공적 토론과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마]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고, 만약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차별이나 고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민원 제기, 청원 운동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 참여 방법들을 통해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바] 정의롭지 못한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 밑에서는 다수를 설득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저항한다면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치료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상처도 입기 전에 야단법석을 떨며 막으려 드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고 항상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민들이 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가?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 -

-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바탕으로 [가]에서 주장하는 바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마]와 [바]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550~700자> [40점]

2022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세계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국가 간 자원 전쟁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석유나 석탄 등의 인류가 의존해 온 에너지 자원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불안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석유, 석탄과 같은 동력 자원뿐만 아니라 쌀, 밀, 옥수수 등과 같은 식량자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분량이지만, 생산 지역의 편중과 국제 교역 및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에 따라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각국은 국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고,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국가들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전쟁과 같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제도나 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이를 일으키는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21개국 정상들은 지난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환경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 인하 공동 이행 지침’에 합의하고, 모든 회원국은 환경 상품에 대해 2015년 말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당신과 나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캠핑장에 왔다고 가정하자. 우리 사이에는 계급도 서열도 없고, 우리의 공동 목적은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모든 가재도구와 놀이용품은 개인이 가져왔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한다. 어떤 이는 낚시하고 어떤 이는 요리한다.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동하고, 자기 능력이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휴식에 공헌하면서 자신도 즐기고 휴식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1

제시문 [나], [다]를 통해서 [가]에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 [다], [라]를 통해 가능한 해결방안을 기술하십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지, 손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뉜다.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 또는 소비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 또는 소비된다.

* 외부 경제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정부는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외부 불경제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 물질의 배출량 제한, 정화 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 직접 규제를 할 수 있고,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이나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외부 경제가 나타나는 연구 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여 이를 장려한다.

- 『고등학교 경제』

[다] 지난 11일, 유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한 빵집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글쓴이는 해당 빵집의 공정을 우연히 보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에 생크림을 덧입혀 새 케이크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항의문은 누리 소통망 사용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언론은 원글쓴이가 쓴 항의문의 내용과, 빵집을 비난하는 누리 소통망 사용자들의 반응을 기사로 다루며 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해당 빵집의 폐업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어제인 17일 저녁, 빵집 주인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해명함으로써 항의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빵집 주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당분간 빵집을 휴업하기로 했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라] 추운 겨울에 독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 주사를 접종하면 자신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확률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온다.

- 『고등학교 경제』

[마] 앞집의 나무 때문에 집 안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법 대신 앞집 주인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인에게 나무를 베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 2

제시문 [가], [나]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활용하여 [다], [라]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행위의 결과나 사회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나 관습,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 개인의 도덕적 감정 및 양심을 자신의 도덕 원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도덕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의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람들 각자가 지향하는 도덕 원리가 다를 수 있고,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면한 윤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도덕 판단이 달라 도덕적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덕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윤리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다.

도덕적 상상력이란 각종 딜레마 상황에서 그것이 윤리 문제인지를 지각하고, 그 문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고려하는 능력이다. 한편 배려적 사고는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200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 며칠 후 유럽의 방송매체 <르프티주르날(Le petit Journal)>이 올린 동영상에 떴다. (……)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이민자인 아빠 앙겔과 아들 브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꽃이 있잖니?”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우리들을…….”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럼고 말고!”

“촛불도요?”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 준다는 말에 브랑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 거장 마크 리부(Marc Riboud)의 사진 「꽃을 든 여인」을 찾아 보라. 1967년 6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착검까지 되어 있는 군인들의 총 앞으로 꽃문양 옷차림의, 중간 이름까지 장미꽃(Rose)인 잔 로즈 캐즈미어(Jan Rose Kasmir)라는 17세 여고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선다. 총을 든 군인보다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 당당하기 때문이다. (……)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인.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시는 닥고자 한다. 시는 지배 언어의 자기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재찬, 「총, 꽃, 시」

- 『고등학교 문학』

[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맞아 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엄마였던 사람을 맞아 갔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 증오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분노와 증오를 얻고 싶겠지만, 당신들에게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분명 죽은 아내를 보며 비통했고 충격에 빠졌다. 당신들이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 두자.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앞으로 나와 내 아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 난 지금 막 낮잠에서 깬 17개월 된 아들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 작은 아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감으로써 당신들과 맞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얻지 못할 것이니까.

-테러로 아내를 잃은 앙투안 레리가 누리 소통망으로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범에게 쓴 편지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앞부분 줄거리) 가난한 시골 여인인 ‘나’는 도시에서 온 유식하고 세련된 남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시골 여인에게 싫증을 느낀 그에게 버림받는다. 절망에 빠져 돌아오던 ‘나’는 어두운 밤길에서 남자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정미소로 몸을 숨긴다.

간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로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바보인가 봐 한 마디 못하는 잘 지내나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인가 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남자들이 노래를 똑 멈추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싸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난 사장 죽도록 미웠어. 간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난 사장님 돈 쥐 소리 못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

“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

“나는 사장님 돈 쥐, 소리 못해. 왜냐, 사장 돈 없어.”

“간쭈, 언제 떠나?”

“모래. 오늘 밤, 내일 밤 자고 모래. 내일은 시내 가서 음악 시디하고 고무장갑하고 소주하고 옷하고 신발하고 여러 가지를 살 거야.”

“간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어 볼 거야. 싸부딘은?”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 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싸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간쭈가 다시 노래한다. (……)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 다시 따라 했다. (……)

싸부딘도 노래했다. (……)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정미소 안으로 스며들었다. (……)

두 사람이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싸부딘과 간쭈가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 나는 노래 불렀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나는 정미소를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 불렀다.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두벅두벅, 명랑하게.

-공선옥, 「명랑한 밤길」 중에서

- 『고등학교 문학』

문제 3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라]에서 ‘나’를 비롯한 인물들의 행동이 보여준 도덕적 요소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나], [다]의 도덕적 판단 혹은 실천의 공통점을 말한 뒤 그것이 가능한 이유와 근거를 [라]의 도덕적 요소와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560~700자> [40점]

2022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동일한 정보를 책이나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 매체 자료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올바른 매체 이용을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수용 목적이나 상황과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것인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특정한 언어와 요소를 선택하는 행위에는 생산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외에도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정보나 왜곡된 정보, 자극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용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다.

* 매체 문해력(media literacy): 주로 매체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에는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응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나]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피부건강이라는 점이다. 화장품 업계 1위인 ㄱ사의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 피부과 김 모 원장은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쉬우므로, 외출 후 귀가하면 꼼꼼하게 세안해 오염물질을 씻어야 한다.”라고 피부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ㄱ사에서 출시한 세안용 제품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유해물질로 민감해진 피부의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 준다. 제품개발에 참여한 ㄱ사 박 모 팀장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고 세안효과도 뛰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밝혔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ㄱ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OO 기자 lee **@**news.com -

- 『고등학교 독서』

[다] 얼마 전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암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냥 인간 장영희, 문학선생 장영희에게 초점을 맞춰 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열심히 문학의 중요성, 신세대 대학생들의 경향 등을 성의껏 말했다. 그런데 오늘 우송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장애로 천형(天刑)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난 이 시대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형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난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 맞다. 나는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 투병을 하지만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 나름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천형(天刑): 죄인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 천벌(天罰).

- 『고등학교 국어』

[라] 지도는 실제 세계를 일정한 축척으로 다양한 지리정보를 기호나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 과거 중국인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는 중화사상을 반영하여 중앙에 크게 들어간 ‘화이도’를 그렸다. 우리 조상들이 그린 지도 중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전기의 국가경영 자료 확보 목적 외에도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하였다. 중화사상이 있었던 당시의 세계관에 따라 중국을 지도 중앙에 크게 그렸으나,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고 자세하게 표현한 점에서 우리 국토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제작된 ‘천하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지도 중앙에 중국을 그려 넣어 중화사상을 반영하였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 [라]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3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의 문제로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 기계들을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술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이 이미 기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런데 엘릴은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삶이 더 나아지는 과정, 더 인간적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느낀다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개발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특정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두 기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개별 사례들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 몇몇 기술들이 효율성 추구의 관점을 거슬러 인간의 통제하에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이 자율적이 되는 흐름 속에 곧 묻혀 버리거나 도리어 그 흐름을 돕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 『EBS 국어영역 독서』

[나]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공 지능(AI)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안에 인간만큼 지능적이고 똑똑한 안드로이드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르베르는 “이런 기계가 나중에 자아를 인식하게 되면 흥미로워지겠지만 그것은 가능성 중 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그 기계를 프로그래밍한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은 기계 자체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다.”라며 (……) 인간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인간과 그 밖의 동물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는 일을 제우스로부터 위임받았다. 에피메테우스가 형을 졸라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각기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등 각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간의 차례가 오자 에피메테우스는 이제까지 그의 자원을 몽땅 탕진하였으므로 줄 것이 남아 있지 않았다. 문제를 알게 된 형 프로메테우스는 해결책으로 기술과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기술과 불의 선물을 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었다. 이 불을 사용하여 인간은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마] 노자는 “도(道)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특성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주장하였다. 도가 윤리는 이러한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여,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본다.

*소국과민: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공통된 세계관을 찾고, 이 세계관에 대한 각 제시문의 세부적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세계관을 제시문 [라], [마]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하십시오.

<35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근래 많은 사람이 미디어의 광고에 의지하여 작품이나 책을 고르고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읽는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확산된 완전히 새로운 읽기의 양상이다. 이러한 큰 변화는 지금까지 보편적이라고 여겨졌던 ‘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책 읽기 방식이 보편적이지도 영원불멸하지도 않다는 것을 새삼 가르쳐 준다. 그러한 책 읽기는 역사

의 특정한 국면에서 양식화되고 유행한 일시적이며 특수한 양식일 뿐이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진 책의 수용 방식은 사실 한국에서는 19세기에서야 나타났고 20세기에 들어서고도 한참이나 지난 후 본격적으로 일반화되었다.

- 『고등학교 독서』

- [나] 중세의 수도사들은 글을 베끼는 일을 했다. 글과 그림을 연필로 먼저 그리고 잉크를 사용하여 선화 작업을 한 후에 금박과 색을 입혔다.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고, 책 한 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 수백 마리의 양이 필요했다. 당연히 책 가격은 매우 비싸서 교회와 귀족들이 아니라면 살 수 없었다. 더구나 보석이나 세공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재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 [다] 두 평쯤이나 될까 말까 한 좁은 감방 안에서 7, 8명의 식구가, 때로는 십여 명이 넘는 인구(人口)가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뒤를 볼 때에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는 이 불가피한 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뒤지감의 종이를 따로 만들어 한 움큼씩 묶어서 파는 것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 중의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뒤지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 우선 뒤를 자주 보기로 하였다. 설사가 나니까 한 장으로 부족하니, 석 장 닉 장씩 달라고 하였다. 가다가는 뒤지를 얻기 위하여 헛뒤를 보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다 각각 얻은 뒤지를 서로 돌려 가며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 주는 뒤지만으로는 진정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에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젊은 사람이 청소하러 나가서 마치 담배를 훔쳐 들이듯이, 뒤지를 걸터서 감방으로 들어 주곤 하였다. 이와 같이 도둑굴을 워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뺨을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봉변을 당하고도, 그래도 또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역시 인간인가 싶었다. 이런 것도 인력(人力)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하였다. 그 진정한 경지는 실제로 당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뒤지: 똥을 누고 밑을 씻어 내는 종이.

* 헛뒤: 거짓으로 똥을 누는 행위.

* 갈급질: 부족하여 몹시 바라는 것.

* 걸터서: '걸터들어서'의 뜻인 듯함. '걸터들다'는 '무엇을 찾느라고 이것저것 되는데로 마구 더듬다'의 뜻.

* 소치: 어떤 까닭으로 생긴 일.

- 『고등학교 문학』

- [라] 밤에 엘이디(LED) 화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되어 더 오래 깨어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잠자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한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한다. 전자책 단말기는 대부분의 종이 책보다 가볍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펜을 찾지 않고도 책에 메모를 할 수 있다. 책에 몰입하다 손에 든 채 잠이 드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새로운 단말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밤에 책을 읽다가 숨사탕처럼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잠이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저절로 눈이 감기고 전자책 단말기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침대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 제품은 성공한 것이다. 전자책은 잠들기 전 비몽사몽이면서도 묘하게 감각이 예민해지는 순간에, 이성을 떨쳐 버리고 직관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가장 좋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침대에서건 비행기에서건 기차에서건 스스로 그럴 여유를 허락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좋은 전자책을 손에 들고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독서』

- [마] 책이 있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책 바보다. 자신에게 없는 책을 무슨 수를 써서든 소장하려고 드는 것도 책 바보다. 오직 책을 읽고 인쇄하여 마음이 통하는 고상한 사람에게 주고 뜻이 있는 시골 선비들과도 나누어야지만 책 바보가 아니다. (……) 책에 장서인을 찍는 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사와 아숙의 측면에서 현저히 다르다. 중국인들은 책을 수집하더라도 유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장서인을 찍는 것은 나중에 그 책을 소유할 사람에게 이 책이 누구로부터 전해졌고 누가 평비하며 읽었는지 알려 주려 해서이다. 비유하자면 서화에 제발문을 쓰는 것과 같으니 어찌 공정하고 고상하다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모을 때 소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반드시 본관과 성명, 자와 호 등 서너 가지 장서인을 무슨 관청의 장부와 같이 거둬들여 찍는다. 그 책이 남의 것이 될까 근심하는 듯하니, 어찌 사사롭고 저속하다 하지 않겠는가?

* 장서인(藏書印): 소장하고 있는 책에 찍어 그 임자를 나타내는 도장.

* 아숙(雅俗): 고상함과 저속함.

* 평비(評批): 책 또는 글에 자신의 평가와 견해를 붙이는 일.

* 제발문(題跋文): 책이나 그림 등에 내용을 간추리거나 평하여 써 두는 글.

- 『고등학교 독서』

[바] 생물학자 최재천은 자신이 서재를 ‘통섭원’이라고 부른다. 그곳은 그가 세상과 제자들과 소통하는 장이자,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벽을 깨고 통섭되기를 바라는 공간이며, 또 학자들과 진리를 탐하고 서로의 학문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소망의 공간이다. (……) 또 책을 접거나 구기지 않는다. 책에 줄을 긋고 여기저기 쓰는 것을 싫어한다. 쓸 것이 있을 때에는 쪽지를 써서 살짝 끼워 놓는다. 책이 귀했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다. 서재에 있는 책은 어느 것 하나를 골라잡아 펼쳐도 새것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이들은 까다롭다 할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저 혼자 보는 책이 아니거든요. 저와 학생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 소중히 다뤄야지요. 언젠가는 제 책들이 저와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이 될 테니까요. 대한민국의 어느 도서관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관해 이만큼의 책을 갖고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뒤에 걸어오는 후학들에게 그 도서관 역할을 해 주고 싶어요. 꼭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에게 서재는 그만의 공간이 아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서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자 사유의 숲이다.

- 『고등학교 독서』

문제 3

제시문 [가]의 ‘책의 수용 방식’으로 제시문 [나], [다], [라]를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마]의 화자와 제시문 [바]의 생물학자가 책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580~700자> [40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 주인공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서술한 시를 통해, 국적, 인종, 문화, 취향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가치(태도)가 무엇인가를 서술하도록 함. 특히, 제시문에 나타난 생태 중심주의, 자유주의적 가치관, 동양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 사이의 평등, 타인 존중, 개인의 자유, 상호 공존이라는 생태적,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덕목이 이 시의 배경과 관련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제해설

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서술한 작품으로, 국적, 인종, 문화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가치(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함.

나. 생태 중심주의에 나타나는 관점으로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는 것으로, 인간과 생명은 존재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서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함.

다.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이며 개인은 사회에 우선하고, 타인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든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라. 동양적 윤리관에서 나타나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은 상호 의존하고 공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이러한 사회관을 가지기 위해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함.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키워드 (keywords)	1. 제시문 [나]: 존재의 존중과 평등 존재 자체로 서로 간 존중, 인간 사이의 평등	10
	2. 제시문 [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이 사회에 우선, 타인의 자유 존중, 개인의 삶의 방식 구속 배제, 자율성	12
	3. 제시문 [라]: 공존, 수양, 실천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 공존, 공생, 도덕적 수양,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차별 배제	12
	4. 가점 사항: 주인공이 보여 준 것처럼, “자신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약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6
유의사항	▲ 답안 작성에서 [나], [다], [라]로 구별해서 작성해도 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작성해도 됨 ▲ 키워드 중심으로 평가하되,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키워드의 내용을 의미하는 더 우수한 맥락을 통해 서술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됨	

평가기준	상	S	1, 2, 3, 4의 키워드와 가점 사항을 대부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의 키워드와 가점 사항을 대부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위 사항 중 4의 가점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의 키워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의 키워드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의 키워드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예시답안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 출신이라 하더라도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존재로서, 그 유용성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여, 특히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타인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며 어떠한 이유든지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와 덕목을 기르기 위해 도덕적 수양에 힘쓰고, 사회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문제 02

출제의도

정보의 비대칭 하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예금자 보험 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실행된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도 예금보험공사와 보험 가입자인 금융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인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예금수취와 부실한 자금운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요구하거나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게는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문제해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개를 요구

-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금융기관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가능함을 기술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시, [나]의 사례와 같이 예금자 보험 제도에만 의존해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예금수취 및 부실한 운용이 가능함을 기술
-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에서와 같이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재무상태를 요구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게는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술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가]에서 예금자 보험 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함을 기술 - 이로 인하여, 정보량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술 2)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제시 - [나]에서 무분별한 예금 수취와 부실한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 3)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재무상태 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차등 보험료를 적용	30
상	S	(1)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정보비대칭 존재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사례) 무분별한 예금 수취와 부실한 운용 → 해결방안: 예금보험공사의 골라내기, (구체적 해결방안) 재무상태 정보 요구, 보험료 차등 적용, 보장한도 축소 등 하나 이상 제시 위 사항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논리적 흐름이 우수한 경우	
	A	위 (1)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논리적 흐름을 갖춘 경우	
중	B	위 (1)의 사항 중 정보비대칭, 골라내기 등 주요 개념이 누락되었으나 적절한 논리적 흐름을 갖춘 경우 또는, 위 (1)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한 경우	
	C	위 (1)의 사항 중 주요 개념이 누락되고 논리적 연결이 미숙한 경우	
	D	위 (1)의 사항 중 주요 개념이 누락되고 전체적인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주요 개념의 파악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50자 이하를 적은 경우	
	F	백지 답안	

예시답안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가입자인 금융기관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예금자 보험 제도에만 의존하여 과도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예금을 부실하게 운용하여 오히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보를 덜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골라내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기관들에게 재무상태 자료를 요구 또는 조사하거나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98자)

문제 03

출제의도

제시문 [가]와 [라]는 각각 갈등의 폭력과 평화의 개념,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윤리’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두 제시문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평화와 공존 등의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학습하는 항목으로 윤리 교육을 통해 학습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나]와 [다]의 문학작품에 대한 비판적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논술형 문제이다. ‘폭력’의 양상과 인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 등을 문학 작품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추론해 내도록 유도한다.

[10국02-03]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와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해설

[가]는 갈등의 ‘폭력’과 ‘평화’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우선은 제시문 [가]의 요지와 문제제기를 잘 파악하여 [나]와 [다]의 소설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양상을 분석한다. [나]는 독일에서 어린 시절 화자가 만났던 베트남 가족과의 일화를 다룬 소설이고, [다]는 채식주의자인 ‘아내’가 세상의 편견에 부딪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은폐된 폭력’과 편견이 드러나는 내용의 소설이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갈등의 ‘폭력’과 ‘평화’의 개념을 이해하여 소설 속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그 이유, 소설에 나타나는 감추어진 폭력의 양상 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의 요나스의 책임 윤리 관점에서 이 두 작품의 폭력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적는 문제이다. 갈등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 개념은 [나]의 소설에서는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생각과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다]의 소설에서는 채식주의자의 내면보다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억지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육식을 하는)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강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요나스의 ‘책임’의 개념이 지닌 윤리성을 이해하여 그것을 타자와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행위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서술해 보는 문제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나], [다]의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서술한 경우(10점), 2. [가]를 통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잘 설명한 경우(10점), 3. 1, 2의 분석과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윤리적 책임’이 [나], [다]의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 잘 논술한 경우(20점)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40
상	S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 개의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정도만 달성하고 있고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제시문 [나]와 [다]는 어린 시절 독일에서 만난 베트남인 가족과의 일화를 통해 베트남전에 관한 불편한 기억이 만드는데 갈등, 그리고 채식주의자인 아내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갈등을 각각 다룬 소설이다. 우선, [나]의 경우 갈등은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인 가족 사이에서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불편한 기억 때문에 발생하거나,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양심과 태도의 차이 때문에 나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생긴다. [다]에서는 폭력을 암시하는 끔찍한 꿈으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의 다름을 ‘세상’이 ‘비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 드러나는 폭력은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구조적 폭력이거나 문화적 폭력이다. 제시문 [라]에서 요나스는 윤리적 책임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나]와 [다]의 인물 간 갈등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 되어야 할 것을 둘러싼 책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의 문제나 채식주의자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은 모두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에 해당된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특정한 구조 속에 놓인 행위자(사람)가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공백포함 684)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이해한다.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노력을 넘어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국제법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맺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그 예임을 이해한다. 현대에는 국제 관계에 국가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한다.

문제해설

[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 문제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는 국제 사회가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이다. [라]는 비정부 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임을 명확히 기술함. ▲ 지구 온난화 대신 기후 변화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5
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명확히 요약함. ▲ 국제법 대신 국제적 공조 체제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10
3.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함.		8
4. 제시문 [마]를 바탕으로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함.		7

평가기준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법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현대에는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총 386자)

문제 02

출제의도

어떠한 규범과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한다. 2000여 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부모의 잘못을 비호하는 효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춘추 전국시대 공자와 맹자가 제기한 효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동시에 오늘날에는 이런 효의 개념이 왜 적용될 수 없으며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문제해설

[가]에서는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동시에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효와 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효라는 개념은 유가의 핵심 덕목이자 인에 이를 수 있는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강조하는데, 특히 효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효라는 개념은 인격 완성의 출발점이자, 인간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유교의 핵심적인 규범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제도와 구조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범죄자는 응당히 처벌을 받는 등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받고,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00여 년 전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부모의 잘못을 비호해야 한다는 관념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단점인 온정주의 폐단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효라는 개념이 유가의 핵심 덕목이자 인에 이를 수 있는 근본임을 명확히 이해함.			7
	2.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효 개념이 확장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이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함.		7
	3.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제도와 개인의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함.		7
	4.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공정한 원칙(혹은 법 앞의 평등)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공자와 맹자의 주장은 현대적 정의를 벗어나는 행위임을 이해함.		9
평가기준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인은 사랑의 정신이자,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효와 제는 인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사회질서가 확립된다고 보기에 공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효는 인격 완성의 근본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와 대동사회에 이르는 근본이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는 효를 어떠한 규범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행위에 따르는 응분의 몫을 받을 때,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다. 부모 잘못을 변호하는 행위가 효 윤리에 부합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정의를 벗어난 행위임은 명백하다.(398자)

문제 03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와 각각의 정의관(正義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liberalism)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외부의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인간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에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 주장은 근대 칸트의 인식론 및 실천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관점은 정치철학적 논쟁의 본산인 미국에서 롤즈(J. Rawles)와 노직(Nozick)에 의해 수용되었다.

제시문 [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매킨타이어(A. McIntyre)의 주장으로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얽혀 있다. 이를 연고적 자아(緣故的 自我)라고 부른다. 따라서 개인은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책무 및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제시문 [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도 급진적인 입장으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의 관점을 대표하는 노직의 소유권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정당한 사유라면 신성불가침으로 인정되며 소유물의 활용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인 왈처(M. Walzer)의 분배 문제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분배는 사회적 가치이기에 사회는 곧 분배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기에 공동체 공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프랑스 문학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소설의 배경은 1870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후 반독(反獨) 분위기가 팽배하고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극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이때 프랑스 장교 드레퓔스는 독일을 위한 간첩행위라고 낙인 찍혀 배신자로 몰리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졸라는 드레퓔스는 유대인으로서 마녀사냥의 희생자이며 검찰의 수사 또한 공정하지 않았음을 폭로한다. 이를 통해 졸라는 국가, 사회적 상황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졸라는 자신이 속한 협소한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조각으로 형상화한 로댕의 작품인 『칼레의 시민』에 대한 예술 비평 글의 일부이다. 백년전쟁(1337~1453)에서 영국에 패배한 프랑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프랑스 북부의 도시인 칼레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몰살의 위기에 있었다. 이에 칼레의 시민 전체를 구하기 위해 높은 신분에 있었던 시민 6인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받아들였다. 이 역사적 이야기는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하는 공동체주의 정의, 즉 공공선(公共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함	10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으로 설명함.	5
		3. 제시문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함.	5
		4. 제시문 [가]와 [나]를 기반으로 [마]에 들어 있는 정의관을 추론하여 기술함.	10
		5. 제시문 [가]와 [나]를 기반으로 [바]에 들어 있는 정의관을 추론하여 기술함.	10
평가기준	상	S 1, 2, 3, 4, 5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5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5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5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5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5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이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얽혀 있음(연고적 자아)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신성불가침으로 존중되어야만 하며 아울러 그 소유물의 활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나]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라]에서는 분배의 문제란 철저히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분배는 각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과 상황에 의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은 각각 정의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데, 제시문 [마]의 역사적 사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준다. 독일에 패전한 프랑스가 그 희생양으로 유대인 장교 드레퓔스를 반역죄로 유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의 이념으로 드레퓔스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바]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주고 있다. 백년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자 프랑스의 칼레 시와 시민 전체가 위험에 처하자 높은 지위에 있는 6명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대신 처형을 받음으로써 전체 시민의 생명을 구하였다. (총 665자)

2023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역할과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뉴미디어(SNS)에서 쓰는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용 현상을 문화의 정의 및 문화의 속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또한 제시문을 토대로 줄임말, 신조어 사용이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분석적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제해설

제시문 [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 시 뉴미디어를 통해 쓰이는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용 현상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문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제시문 [가]에서 “언어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었는데,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의 지문에서 언어가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언어가 문화적 산물이자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라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매체가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나]는 줄임말과 신조어의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화의 정의 및 문화의 다섯 가지 속성에 관한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임. [가]의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의 복잡성(혼란성) 관련, [다]를 통해 언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매체를 통해 언어생활이 의사소통의 단절 및 사회적 갈등과 차별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다]의 내용에서 ‘언어 규범 및 윤리 파괴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는 언급은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줌. 따라서 제시문 [가]와 [다]를 토대로 부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파악해야 함.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문제1]	A.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용 현상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네 가지 이상 제시하는 질문과 관련해 ① 줄임말과 신조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혹은 거울)이다. ②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가진다. ③ 그 사회의 (언어) 문화를 학습한다. ④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나 내용, 의미 등이 변화한다. ⑤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진다. ⑥ 문화의 요소는 별도로 기능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다. B.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의사소통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서술하는 문제와 관련해 ① 뜻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비윤리적 언어 사용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한다. ②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혼란을 가중 시킨다(혹은 사회 갈등이나 차별로 이어진다). ③ 매체를 통한 언어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무례한 표현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④ 과도한 맞춤법 파괴, 무분별한 신조어의 사용 등도 지양해야 한다(혹은 언어 규범 및 윤리 파괴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 B에 대한 추론의 답으로 상기 4개 이외의 내용을 답으로 적시한 경우, ‘언어 규범 및 윤리 파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제외	30

상	S	A의 평가 기준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하고,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매우 우수한 경우
	A	A의 평가 기준에서 4개 이상을 충족하고,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중	B	A의 평가 기준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하고,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 중 3개 미만을 충족,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양호한 경우
	C	A의 평가 기준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하고,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 중 3개 미만 충족,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D	A의 평가 기준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고,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 중 2개 미만 충족,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A의 평가 기준에서 2개 미만을 충족하거나, B의 평가 기준 ①, ②, ③, ④ 중 2개 미만 충족, 문장력 등이 부족한 경우
	F	A의 평가 기준과 (1), (2), (3)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분량이 절반 이하인 경우

* 답안내용의 충실도와 글의 완성도의 두 조건을 서로 비교하여 둘 중 하나가 기준보다 우수한 경우 상향 보정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예시답안

줄임말과 신조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다.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가진다. 그 사회의 (언어) 문화를 학습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나 내용, 의미 등이 변화한다.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진다. 문화의 요소는 별도로 기능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다.

뜻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비윤리적 언어 사용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매체를 통한 언어생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무례한 표현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과도한 맞춤법 파괴, 무분별한 신조어의 사용 등도 지양해야 한다. (총 386자)

문제 02

출제의도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 기업가적 혁신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기업과 기업가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과학 기술 활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기업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성장하며, 혁신의 결과로 인한 이윤을 얻으므로 그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인류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파악한다.

문제해설

[가]는 기업의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업가의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 기업과 기업가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도덕적 속고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을 설명하고 있다. [다]와 [라]의 사례는 첨단 기술 발전의 장점과 함께 그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공 지능 발전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술에 의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농업 생산성과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인체 유해 가능성과 생물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활동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경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총점 30점)
	○ 제시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 1) 경제, 사회, 자연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막대함 -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 생산 활동의 주체, 타 경제 주체와의 관계 -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함 2)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므로 첨단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성의 도덕적 숙고를 통해 윤리적 공백을 막음으로써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게 사용할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의 인간 지배 -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해성, 생물 다양성 훼손 3) 필요한 자원을 사회에서 조달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함	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3가지 이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기업의 역할,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인류를 위한 도덕적 숙고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논리적 흐름이 우수한 경우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3가지를 기술하고, 기업의 역할 등 다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한 경우 B: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2가지를 제시하고, 다른 내용을 언급한 경우 C: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가지를 제시하고, 다른 내용을 언급한 경우 D: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근거의 타당성이 결여된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부정하며 비논리적이고 일방적 주장만을 하는 경우 E: 30자 이하를 적은 경우 F: 백지 제출

예시답안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1) 현대 사회에서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 기업가가 혁신의 주체로서 첨단 과학 기술 활용시 도덕적 숙고를 하지 않으면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인간 지배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생물 종의 다양성을 훼손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기업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사회에서 구하여 경영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공백포함 389자)

문제 03

출제의도

제시문[가]에서 개인의 양심과 진리와 정의가 ‘위대한 인간 선언’의 조건임을 파악하고 [나]와 [라]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찾아 서술할 수 있는 독해력을 평가한다. 또, 개인의 윤리성과 국가의 정당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주어진 문제를 여러 고교교육 과정 내 과목의 학습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사유로 풀어 나가는 능력을 평가한다.

[10국02-03]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와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해설

세계화로 인한 영향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국가 간 협력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과 심화, 환경문제 등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많이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중요한 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 역시 세계화 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덕목으로서 세계시민의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시민적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이 문항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자국가 중심주의(국수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과 국가의 노력을 제시문에서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적, 시민적 덕목과 관계되는 시민적 양심과 진리를 장 발장의 ‘위대한 인간 선언’에서 찾고, [나], [다]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시민적, 도덕적 품성을 갖추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국가의 정당성 획득의 방법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을 갖춘 개인과 국가가 자민족, 자국가 중심주의를 넘어서 국가 간 상호 협력과 세계시민 의식에 기초한 ‘글로벌 수준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20대 80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을 통해 이러한 개인과 국가의 자질과 노력을 파악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문제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3	1. [가]에서 ‘위대한 인간선언’의 의미 이유를 잘 찾은 경우(10점), 2. [나], [다]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다] 제시문에서 그 정당성의 실례를 찾아서 잘 적은 경우(10점), 3. 1, 2의 답안 내용을 제시문 [라]의 내용과 함께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문제점(불평등 구조의 심화)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국가’의 노력과 그 필요성 및 이유를 잘 이해하여 서술한 경우(20점),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40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평가 기준을 작성

※ 평가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위대한 인간선언’은 장 발장이 자신을 ‘레 미제라블’(불쌍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들의 비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위선적인 중산층 시민들과 달리,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감수하면서 각자의 진리와 정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역으로 ‘위대한 인간’이다.

스웨덴은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해 총리가 기업, 노조 대표를 비롯해 전 국민을 설득해, 세금을 많이 내지만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국가의 노력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를 이루어냄으로써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마]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복지, 민주주의, 생태계 측면의 20대 80의 불평등한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 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장기적 안목의 대응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에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개인에게는 [가]의 위대한 ‘인간의 덕목’이, 국가에는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라는 정당성이 요구된다. (공백포함 663자)

2023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일탈 행동의 의미,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사례를 적용하여 일탈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각 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출제의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설

[가]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데,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도 장소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탈 행동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탈 행동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 제시된 카니발의 사례는 사회 규범이 엄격한 사회에서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일탈 행동이 되지만, 카니발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신분 질서 파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축적된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억압이 정치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라]에 제시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을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다]에 제시된 사례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탈 행동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일탈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일탈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함.	5
	2.	제시문 [가]를 근거로 제시문 [나]의 카니발이 왜 일탈 행동이 아니며, 어떤 긍정적 기능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함.	10
	3.	제시문 [다]에 제시된 사례를 일탈 행동의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게 함.	5
	4.	제시문 [다]를 제시문 [라]에 제시된 일탈 행동의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차별 교제 이론으로 명확하게 설명함.	10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2, 4 모두와 1,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2, 4 모두와 1,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예시답안

일탈 행동은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신분제도가 엄격한 시대에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은 일탈 행동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사례에서 제시된 카니발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신분 질서 파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일탈행동이 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축적된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억압이 정치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다]의 사례에 제시된 내용은 [라]의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탈 행동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즉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395자)

문제 02

출제의도

공공재 무임승차를 주제로 선택하여, 공공재의 속성으로 인해 예측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가 어떠한 지를 이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실험에서의 사람들의 실제 반응 양상을 요약하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논술 주제에 대한 이해력, 실험 결과의 추론 해석 능력, 그리고 논술 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순수) 공공재의 일반적 속성, 즉 공공재의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 다시 말해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론적, 이론적 시각에서 공공재에의 무임승차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려고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에서의 공공재의 일반론적, 이론적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이(피실험자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가진 표(개인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agent로서의 실험 도구)의 거의 반을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추론적으로 해석하는데 바탕/근거가 되도록 제시문 [다]와 [라]를 제시하였다. 공공재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문제 [2]에서는 공공재 무임승차에 대한 실험에서 개인적/집단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시민의 윤리적 차원이 공공재 무임승차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시문 [다]는 진화론 관점에서 볼 때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종이 경쟁해야 하는 (.....)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할 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결국,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주의/공동선에 지향성을 가지며, 공동체 속의 개인은 배려와 사랑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평가기준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함.	5
		2.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공공재 무임승차와 관련한 실험 결과를 명확히 요약함.	5
		3.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를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함.	10
		4.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를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함.	10
평가기준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평가 기준을 작성

※ 평가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공공재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속성으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공재 무임승차에 관한 일반론적 예측과 달리 [나]의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약하며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먼저 생명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주의와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공동체 속의 개인은 배려와 사랑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 (392자)

문제 03

출제의도

시민이 사회적 쟁점의 해결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들을 개인의 사회적 감정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분석적 이해력과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해설

[가]에서 하버마스는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이러한 사회적 쟁점들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민주적인 절차 즉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회적 쟁점이 있다. [라]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세대 간 불균형’이 바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평가기준

[나]와 [다]에서 우리는 [가]의 주장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에서 혹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오히려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때로 개인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와 [다]에서 찾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첫째,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더라도 이성보다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면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에 대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인(否認)의 감정으로 인해 합의된 해결안을 만들어내기 힘들 수 없다. 둘째, 각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 각자 자신의 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인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미해결 쟁점과 관련된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즉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서 부당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바]에서 소로는 시민의 불복종 입장을 고수한다. 정부가 병이라는 근원적인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로는 현재의 법과 정책을 어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개념을 활용해서 [가]의 주장하는 바의 한계점을 기술함.	5
		2.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개념을 활용해서 [가]의 주장하는 바의 한계점을 기술함.	5
		3. 제시문 [나]로부터 도출된 한계점을 적용하여,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10
		4. 제시문 [다]로부터 도출된 한계점을 적용하여,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10
		5. 제시문 [마]의 입장에서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5
		6. 제시문 [바]의 입장에서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5
평가기준	상	S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5, 6 중 4개만(3 또는 4 중 하나는 꼭 포함)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5, 6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5, 6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예시답안

[가]에서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에서 혹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오히려 사회적 감정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의 제시문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해 때로 개인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와 [다]에서 찾은 한계점들을 토대로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전제되더라도 이성보다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혹은 주장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출 부담에 대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인(否認)의 감정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리고 각 세대의 ‘합리적 선택’이 각자 자신의 세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인 ‘세대 간 정의’를 확립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의 입장에서 시민은 민원 제기, 청원 운동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부인의 사회적 감정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해야 한다. [바]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현명한 시민이 공론장을 넘어서 불복종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보다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당한 법과 정책의 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700자)

2022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세계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이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 자원 문제, 식량 문제 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협조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물어본다.

문제해설

- 제시문 [가]는 세계화로 인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함.
- 제시문 [나]는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원인으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현실주의는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음을 보여주고 자유주의는 국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 법이나 국제규범의 결여를 보여준다.
- 제시문 [다]는 공동체가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인식의 변화 등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준다.
-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서 [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 간의 협조와 국제규범의 부재로 기술할 수 있다.
- 제시문 [라]는 구성원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문 [나], [다], [라]의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제시문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 자원부족과 식량 부족의 문제를 인식함. (2)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나]와 [다]의 핵심개념으로 기술한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현실주의에 의하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국가(강대국)의 이기주의로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를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의 해결방안은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협조이지만 역시 [나]의 예시처럼 그러한 협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줌. (3)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나], [다], [라]의 핵심 개념인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현실주의에 의하면 국가 간의 협조체제가 흔들림. - [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 간의 양보와 협조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라]: 예시를 통해 구성원들의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리하면 문제해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함.	30

평가기준	상	S	채점기준 (1), (2), (3)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제시문의 관계설명을 통해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장, 글의 구성이 잘 되어 있음.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분된 답안을 제시함. (1) [나]와 [다]를 통한 [가]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원인 (2) [나], [다], [라]를 통한 [가]의 문제해결의 방안을 기술 글자 수가 320자 이상.
		A	S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분량이 다소 부족한 경우 (적어도 250자 이상)
	중	B	질문의 요지는 파악하였으나 두 가지 질문 중 한 가지의 답안이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경우 (1) [나]와 [다]를 통한 [가]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원인 (2) [나], [다], [라]를 통한 [가]의 문제해결의 방안을 기술
		C	제시문의 요지는 파악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문장의 정확성, 전달력은 충분함.
		D	제시문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의 정확성, 전달력이 부족함.
	하	E	평가 기준에 대부분 부적합함.
		F	답안 없음. 기타 부적절한 답안.

예시답안

[가]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원부족과 식량부족의 문제를 보여준다. [나]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보여주고, [다]는 공동의 문제의 해결방안은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협조임을 보여준다. [나]와 [다]에 따르면,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의 문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공동의 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국제기구 등의 협조체제를 통해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백포함 355자)

문제 02

출제의도

경제에서 다루는 외부 효과 개념을 외부 경제와 불경제로 나눠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정부의 개입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분석적 이해력과 적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해설

- 제시문 [가]는 외부 효과라는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 효과는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이외 제3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며, 외부라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래 당사자 간 교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한다.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뉘며,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적정 수준보다 많이 또는 적게 일어난다. 제시문 [나]는 시장 실패의 정의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안을 소개한다. 정부의 개입 방안은 외부 경제와 불경제로 나뉘서 제시될 수 있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가]와 [나]에서 나타난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문 [다]의 경우를 설명한다면, 먼저 제시문 [다]가 언론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뺑깍 주인이라는 개인을 넘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거래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정보 생산자인 언론이 판매자며 정보 이용자인 구독자가 구매자로 구성된 정보 거래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 내 거래 당사자들 외 제3자로서 다수 시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로 존재한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사회에 유포함으로써 이들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다]는 외부 효과 중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그 손실은 언론사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다. - 제시문 [가]와 [나]의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의 경우를 설명한다면, 먼저 백신 접종이 피접종자 자신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거래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제약사 또는 의료기관이 판매자이고 백신 주사를 맞는 피접종자가 구매자로 구성된 백신 접종 거래 시장이다. 그리고 이 시장 내 거래 당사자들 외 제3자로서 다수 시민들이 독감이라는 질병에 노출된 감염 주체로서 존재한다. 백신 주사를 맞는 피접종자 이외 다수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릴 확률 즉 감염률을 낮추는 혜택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효과 중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 이후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가능한 정부 개입 방안들 중 하나인 직접 규제를 선택하고 이를 [다]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부의 직접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를 통해서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이 없이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정부 개입과는 다른 해결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4		1.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의 개념을 제시문 [다]에 적용하여 관련 거래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장 외부의 제3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외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술함.	10
		2.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의 개념을 제시문 [라]에 적용하여 외부의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기술함.	5
		3. 제시문 [나]로부터 정부 개입 방안들 중 직접 규제를 추출해 언급하고, 이를 제시문 [다]의 상황에 적용하여 정부의 직접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함.	10
		4. 제시문 [마]로부터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이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함.	5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2개 이하를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예시답안

[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로, 정보를 판매하는 언론사와 구매자인 구독자 간 거래 밖 다른 사람들에서 손해를 끼친다. 사실이 아닌 정보의 만연은 기사를 소비하는 구독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언론의 불신을 야기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라]의 경우, 백신 접종은 피접종자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률을 낮추는 경우로, 이 역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다]의 경우, 정부가 사실확인 의무를 언론사나 포털에 부여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거짓 정보의 유통을 충분히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실 정보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마]의 경우처럼, 언론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공백포함 398자)

문제 03

출제의도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소설의 일부인 제시문 [라]의 인물들이 지닌 도덕적 요소를 찾아내고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도덕적 갈등 상황의 문제 해결이 어떤 도덕적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다. 주어진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 중요한 개념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의 지문과 상황 속에서 적용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윤리성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독해력, 추론 능력, 주어진 정보를 통한 문제 해결력과 응용력 등을 통합논술의 취지에 맞춰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문제해설

- 도덕원리, 사실판단, 도덕 판단, 도덕적 갈등 해결, 도덕적 상상력, 배려 등의 개념과 필요성, 적응능력 등을 실제 문학 작품의 독해를 통해 확인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이해와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유도해서 측정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에는 도덕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덕적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력, 도덕적 상상력, 타자에 대한 배려적 사고 등이 제시된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는 이런 도덕적 요소를 지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제시문 [나], [다]는 테러리즘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논리로 비폭력 저항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도덕적 판단과 실천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바탕에는 자신의 고통과 증오를 넘어서 폭력의 비도덕성을 성찰하고 고발하는 도덕적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도덕적 능력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비판적 사고, 도덕적 상상력, 배려의 능력을 제시문에서 찾아내고 있는지(이 중 비판적 사고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만 찾아내도 됨) 2. 제시문 [라]에서 인물들의 도덕적 측면을 잘 분석해 내고 있는지, 3. 제시문 [나], [다]의 주제인 반테러, 비폭력의 주제를 찾고 그 도덕적 성취가 타자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40
평가기준	상	S	세 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 개의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세 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정도만 달성하고 있고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 의하면 도덕적 갈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향하는 도덕원리의 차이, 사실판단의 정확성 여부, 당면한 윤리 문제에 대한 도덕 판단의 차이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도덕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다. 제시문 [라]에서 ‘나’는 가난한 시골 여성으로 서울에서 온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를 얻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두 남자의 대화를 듣고 또 노래를 몰래 따라 부르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깐꾸는 자신이 돈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장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장의 슬픔에 공감한다. 싸부딘은 형, 여동생, 조카에 대한 연민을 통해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 이 세 인물은 이 점에서 모두 타자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의 마음이라는 도덕적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제시문 [나], [다]는 모두 테러리즘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글이다. 꽃이 총을 이긴다는 생각이나 테러로 아내를 잃었음에도 증오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정당성은 비판의식 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 그리고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도덕적 우월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공백포함 661자)

2022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책이나 신문 인터뷰,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지도 등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독자들에게 매체 문해력 증진을 위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합리적 해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준 3개를 제시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제시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해설

- [나]의 사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례다. 이를 기사로 볼 것인지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독자들에게 기사와 광고의 혼동을 주면서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지나친 상업형 광고는 기사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미세먼지와 피부건강과의 관련성은 있겠지만, 밀접한 관련성 주장의 불충분한 근거는 과장된 정보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한 권위에 의한 주장도 문제다.
- [다]의 사례는 대담자인 교수의 의도와는 달리 ‘신체장애를 극복한 천형같은 삶’ 형식의 기사제목 선정은 편집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신체장애와 천형의 표현은 사실과 사실의 평가영역으로 서로 다르다. 기자는 장애인 비하의 문제점을 모두 이해했음에도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의도로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와 너무 다른 제목은 그 의도가 담긴 기사내용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대상자는 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제목만 본 독자는 기사의 제대로 된 해석이 힘들다. 장애인 비하를 불러오는 ‘천형’의 표현은 비합리적인 차별 기사제목이다.
- [라]의 사례는 특정 목적과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지도제작에 관한 것이다. 그 당시의 세계관, 지명 등 역사적 사료 가치는 있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영향과 함께 실재의 측량 결과가 아닌 지리정보에 대한 신뢰는 낮다. 지도는 지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불충분하고 과장된 지도의 정보는 이용이 낮아지기도 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제시된 정보에서 수용자의 매체 문해력 증진을 위한 3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이 각각의 제시문의 문제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묻고자 하는 문제다. (1) [나]의 사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례다.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볼 것인지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평가의 주요 기준은 정보 생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제품구매 유도)와 신뢰가 높은 기사를 이용한 지나친 상업용 광고는 신뢰가 낮은 정보가 과장된 정보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적었느냐 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광고와 기사의 미분리도 문제다. (2) [다]의 사례는 인터뷰를 했던 해당 교수의 의도와는 달리 ‘신체장애를 극복한 천형같은 삶’ 형식의 자극적 기사제목이다. 자극성으로 독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제목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가 담긴 글 내용의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다. 2개의 사항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기자에게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장애인 비하를 불러오는 자극적인 낱시성 기사의 비합리적인 차별성 지적도 좋다. (3) [라]의 사례는 특정 목적과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지도제작에 관한 것이다. 실제 지형의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지도정보의 신뢰를 강하게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상보다 이용도 적었을 것이다. 지도제작 시 지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어울리지 않게끔 특정 이념 및 종교의 강한 개입도 문제다. 그러나 중화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로 나타난 지도정보는 숨은 의도 해석을 통해 당시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사료로써 가치는 있다.	30

평가기준	상	S	평가기준 (1), (2), (3)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매우 우수한 경우
		A	평가기준 (1), (2), (3)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중	B	평가기준 (1), (2), (3) 각 영역에서 2개를 충족하여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매우 우수한 경우
		C	평가기준 (1), (2), (3) 각 영역에서 2개를 충족하여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D	평가기준 (1), (2), (3) 각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무난한 경우
	하	E	평가기준 (1), (2), (3) 각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F	평가기준 (1), (2), (3)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분량이 절반 이하인 경우

예시답안

[나]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보다 피부 건강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상업적 광고로 신문기사에 신뢰를 갖고 있는 독자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상품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과장된 정보다. [다]의 ‘신체장애를 극복한 천형같은 삶’의 기사제목은 독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자극적 제목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와 크게 다르다. 제목만 본 독자는 인터뷰 내용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기만당했다는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다. 장애인 차별의식도 문제다. [라]의 중화주의 세계관 혹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 제대로의 실측 반영이 안 된 지도의 과장된 정보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도정보에 대한 약한 신뢰와 지도의 저조한 이용을 가져 온다. (공백포함 393자)

문제 02

출제의도

과학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자연관,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동서양이 자연에 대해 갖는 세계관을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보도록 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가]는 현대인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를 기술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이롭거나 해롭게 되는 것은 이용 주체, 즉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는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이 자연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과학기술을 도구적으로, 즉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다는 점을 신화적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용주체와 이용수단(대상)이라는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지배와 통제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불교의 연기설로 모든 존재들이 상호 연관되어 협력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는 점을 설명한다. [마]는 노자의 도가 사상으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면 만물평등의 사상까지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세계관, 지배와 통제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특히 [라]를 통해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마]를 통해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용주체와 이용수단(대상)이라는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지배와 통제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2) 제시문 [가], [나], [다]는 위와 같은 공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다]는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이 자연과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과학기술을 도구적으로, 즉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다는 점을 신화적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견해이다. [나]는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이롭거나 해롭게 되는 것은 이용 주체, 즉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기술에 관한 보다 중립적인 견해이며 이용주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현대인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를 기술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3) [라]는 불교의 연기설로 모든 존재들이 상호 연관되어 협력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는 점을 설명한다. [마]는 노자의 도가 사상으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면 만물 평등의 사상까지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자연관, 지배와 통제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특히 [라]를 통해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마]를 통해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30
평가기준	상	S	평가기준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A	평가기준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중	B	평가기준 (1), (2), (3) 중 2개만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C	평가기준 (1), (2), (3) 중 2개만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D	평가기준 (1), (2), (3) 중 1개만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하	E	평가기준 (1), (2), (3) 중 1개만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F	평가기준 (1), (2), (3)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예시답안

[가], [나], [다]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자연관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기술을 도구화하든지, 이 과정에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든지 한다는 지배/통제의 관점이다. 특히 [다]는 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하며 인간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는 인간이 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의 유익성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하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라]를 통해 인간과 기술이 상호 의존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마]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기술을 이용한 자연의 지배, 기술에 의한 인간의 억압을 비판할 수 있다. (공백포함 396자)

문제 03

출제의도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다양한 매체들이 출현했지만, 책이라는 매체와 독서(책 읽기)라는 행위는 여전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문항에서는 책의 제작과 유통, 독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분석하여, 지식을 공유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물었다. 각 제시문에 드러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숨겨진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각 제시문을 맥락에 따라 읽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책의 수용 방식이 다양함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의 복잡한 공정과 비싼 제작비로 상류층만 향유할 수 있던 중세 유럽의 필사본 문화, [다]의 근대(일제 강점기) 감옥에서도 열성적으로 책을 읽고자 했던 독서 욕구와 잡지가 ‘뒤지’로 쓰일 정도로 책이 흔해진 근대 인쇄 출판 문화, [라]의 전자책(단말기)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이와 함께 변화한 독서 문화를 파악하려면, 글에 드러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는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제시문 [마]의 화자와 제시문 [바]의 생물학자는 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서로 상반된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두 글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책과 독서를 소재로 하는 여러 종류의 글을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그 글이 쓰인 당시의 시대 배경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다양한 매체들이 출현했지만, 책이라는 매체와 독서라는 행위는 여전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문항은 책의 제작과 유통, 독서 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핍으로써, 지식을 공유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인류의 노력을 돌아보고자 출제하였다.

제시문 [가]: ‘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는’ 책의 유통 방식과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책 읽기 방식이라는 ‘책의 수용 방식’은 근대의 인쇄 출판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이며 특수한 양식이다.

제시문 [나]: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사의 필사와 숙련된 장인들의 다양한 공정으로 만들어진 양피지 필사본은 워낙 고가여서 높은 신분과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었다.(독서는 보편적인 행위가 될 수 없었다.)

제시문 [다]: 근대(일제 강점기)에는 감옥에서 뒤지(화장실용 휴지)로 쓰일 정도로 책이 많이 유통되었고, 온갖 수단을 써서 책(잡지)을 입수하여 서로 돌려가며 읽을 정도로 책 읽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시문 [라]: 전자책(단말기)의 출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가능하게 하였다. 매체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책을 읽는 행위는 유지되고 있다.

제시문 [마]: 화자(『흙영』의 저자 유만주)는 책을 소장하기만 하는 사람을 바보로 부를 정도로 책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책의 내용에 자신의 평가와 견해를 붙이는 행위(메모, 필기)를 긍정했다.

제시문 [바]: 서로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통섭하고자 하는 생물학자 최재천은 도서관의 역할을 자임하며 자신의 서재에 책을 모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책에 일체의 메모나 필기를 하지 않고, 새책처럼 온전하게 소장하였다.

제시문 [나], [다], [라]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시문 [마]와 [바]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시대에 쓰여진 글로 각기 당대의 독서 문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	(1) 제시문 [가]에서 ‘책 수용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를 파악해야 한다. (2) 제시문 [나]에서 많은 공정과 비싼 장식이 들어간 고가의 양피지 필사본 책은 제한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음을 파악한다.(독서는 보편적인 행위가 될 수 없었다.) (3) 제시문 [다]의 내용에서 근대 출판 인쇄 문화, 독서 행위가 보편적이 되었음을 추론하여야 한다. (4) 제시문 [라]에서 종이에 인쇄된 책과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책(단말기)의 장점, 매체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책을 읽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5) 제시문 [마]와 [바]의 공통점인 ‘책을 매개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점인 책 자체(실물)를 대하는 상반된 방식, 책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방식 [책→사람]과 도서관을 구축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사람→책]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		40
평가기준	상	S	평가기준 (1), (2), (3), (4), (5), (6)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한 경우
		A	평가기준 (1), (2), (3), (4), (5), (6)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중	B	평가기준 (1), (2), (3), (4), (5), (6) 가운데 2개 이상이 미진한 경우
		C	평가기준 (1), (2), (3), (4), (5), (6) 가운데 3개 이상이 미진한 경우
		D	평가기준 (1), (2), (3), (4), (5), (6) 각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무난한 경우
	하	E	평가기준 (1), (2), (3), (4), (5), (6) 각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의 논리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
		F	분량이 절반 이하인 경우

예시답안

[나]의 중세에서 책은 매우 비싸서 교회와 귀족만이 소유했다. 책은 독서의 대상이 아닌 신분과 재력의 상징이었다. [다]의 일제 강점기(근대)의 경찰서에서는 잡지를 뒤지로 사용하고 있다. 책 가격이 내려가 널리 유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죄수들이 감방으로 잡지 낱장을 들여와, 서로 돌려 읽고 있다. 글을 읽고 싶은 욕망을 본능이라 할 정도로 독서가 보편화되었다. [라]의 현대에 이르러 전자책이 나왔다. 가볍고, 별도의 조명 없이 볼 수 있으며, 펜 없이 메모도 가능한 데서 종이 책과 달랐다. 단말기를 손에 쥐고 물입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종이 책 읽기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의 화자와 [바]의 생물학자는 자신이 소장한 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화자는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직접 엮어 인쇄하여 나눠주기도 한다. 생물학자는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신의 책을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화자는 책뿐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평가와 견해까지 공유하고자 했다. 책에 글을 적은 것은 물론 소장인을 찍는 것에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생물학자는 자신의 소유임을 알리거나 공부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책을 원래 상태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였다. 화자는 책을 사람들에게 직접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생물학자는 서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함으로써 책을 공유하였다. (공백포함 693자)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자연계열

86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90 2023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94 2022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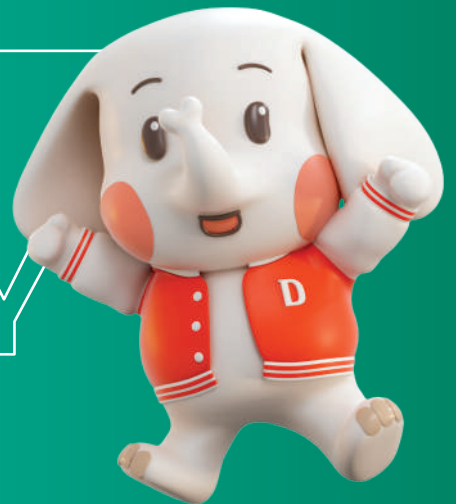
98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05 2023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11 2022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DONGGUK
UNIVERSITY

논술전형 가이드북



2024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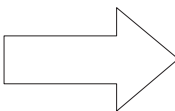
[가] 두 초점 $F(c, 0), F'(-c, 0)$ 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 인 타원의 방정식은

$$\frac{x^2}{a^2} + \frac{y^2}{b^2} = 1 \quad (\text{단, } a > c > 0, b^2 = a^2 - c^2)$$

이다. 타원 $\frac{x^2}{a^2} + \frac{y^2}{b^2} = 1$ 을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하면 타원의 방정식은

$$\frac{(x-m)^2}{a^2} + \frac{(y-n)^2}{b^2} = 1$$

이다. 이때 타원의 초점, 꼭짓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타원의 방정식 $\frac{x^2}{a^2} + \frac{y^2}{b^2} = 1$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 	타원의 방정식 $\frac{(x-m)^2}{a^2} + \frac{(y-n)^2}{b^2} = 1$
$(c, 0), (-c, 0)$	초점의 좌표	$(c+m, n), (-c+m, n)$
$(a, 0), (-a, 0)$ $(0, b), (0, -b)$	꼭짓점의 좌표	$(a+m, n), (-a+m, n)$ $(m, b+n), (m, -b+n)$

- 『고등학교 기하』

[나] 초점이 $F(p, 0)$ 이고 준선이 $x = -p$ 인 포물선 $y^2 = 4px$ 를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n)^2 = 4p(x-m)$$

이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는 $(p+m, n)$, 준선의 방정식은 $x = -p+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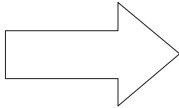
- 『고등학교 기하』

[다] 두 초점 $F(c, 0), F'(-c, 0)$ 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a$ 인 쌍곡선의 방정식은 $\frac{x^2}{a^2} - \frac{y^2}{b^2} = 1$ (단, $c > a > 0, b^2 = c^2 - a^2$)이다.

쌍곡선 $\frac{x^2}{a^2} - \frac{y^2}{b^2} = 1$ 을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frac{(x-m)^2}{a^2} - \frac{(y-n)^2}{b^2} = 1$$

이다. 이때 중심, 꼭짓점, 초점, 점근선은 각각 다음과 같다.

쌍곡선의 방정식 $\frac{x^2}{a^2} - \frac{y^2}{b^2} = 1$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 	쌍곡선의 방정식 $\frac{(x-m)^2}{a^2} - \frac{(y-n)^2}{b^2} = 1$
$(0, 0)$	중심의 좌표	(m, n)
$(a, 0), (-a, 0)$	꼭짓점의 좌표	$(a+m, n), (-a+m, n)$
$(c, 0), (-c, 0)$	초점의 좌표	$(c+m, n), (-c+m, n)$
$y = \pm \frac{b}{a}x$	점근선의 방정식	$y - n = \pm \frac{b}{a}(x - m)$

- 『고등학교 기하』

문제 1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k 는 실수이다.)

$$x^2 + y^2 = (kx + 1)^2$$

- (1) $k = 0$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각각 구하시오.
- (2) $k = \frac{1}{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이다.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와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 (3) $k = 1$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 (4) $k = 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이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코사인함수와 탄젠트함수의 덧셈정리는 각각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cos(\alpha + \beta) &= \cos \alpha \cos \beta - \sin \alpha \sin \beta \\ \tan(\alpha + \beta) &= \frac{\tan \alpha + \tan \beta}{1 - \tan \alpha \tan \beta}\end{aligned}$$

- 『고등학교 미적분』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 의 역함수 $f^{-1}(x)$ 가 존재하고 미분가능할 때,

$$y = f^{-1}(x) \text{의 도함수는 } (f^{-1})'(x) = \frac{1}{f'(f^{-1}(x))}$$

- 『고등학교 미적분』

[다]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인 함수 $f(x)$ 에 대하여 미분가능한 함수 $x = g(t)$ 의 도함수 $g'(t)$ 가 $a = g(\alpha)$, $b = g(\beta)$ 일 때 α, β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int_a^b f(x) dx = \int_\alpha^\beta f(g(t))g'(t) dt$$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2

함수 $f(x) = \sin x + 4x + 1$ 의 역함수 $f^{-1}(x)$ 가 존재하고 미분가능하다.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 = f(x)$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을 l_1 , 곡선 $y = f^{-1}(x)$ 위의 점 $(f(t), t)$ 에서의 접선을 l_2 라 하고, l_1 과 l_2 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θ 라 할 때, $g(t) = \tan \theta$ 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g\left(\frac{\pi}{2}\right)$ 의 값을 구하시오.
- (2) 함수 $g(t)$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 (3) $\int_{f(0)}^{f(2\pi)} g(f^{-1}(x)) dx$ 의 값을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 (x, y) 가 $x = f(t)$, $y = g(t)$ 일 때,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속도는 $\left(\frac{dx}{dt}, \frac{dy}{dt}\right)$, 즉 $(f'(t), g'(t))$ 이고,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은 $\sqrt{\{f'(t)\}^2 + \{g'(t)\}^2}$ 이다.

- 『고등학교 미적분』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면 함수 $f(x)$ 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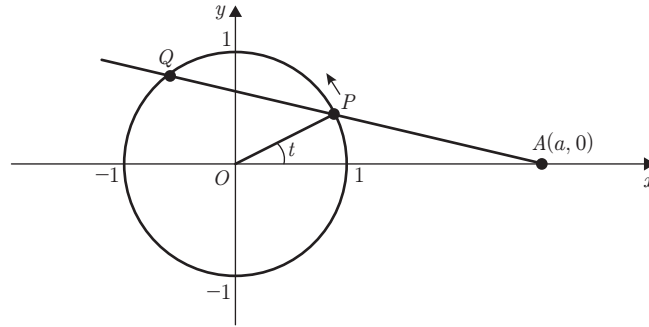
- 『고등학교 수학 II』

[다] t 의 함수 s 가 방정식 $f(t, s) = 0$ 의 꼴로 주어졌을 때, 이를 s 의 t 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한다. 음함수 표현 $f(t, s) = 0$ 에서 s 를 t 의 함수로 보고, 양변의 각 항을 t 에 대하여 미분하여 $\frac{ds}{dt}$ 를 구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 O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x 축 위의 점 $A(a, 0)$ 가 있다.
 (단, $2 \leq a \leq 3$) 점 P 는 점 $(1, 0)$ 에서 출발하여, 시각 t 가 $0 \leq t < \frac{\pi}{3}$ 일 때 $\angle POA = t$ 를 만족하도록 원 위를 반
 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 점 A 와 P 를 잇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 가 아닌 점을 Q 라 하자.



시각 $t = t_0$ 일 때, 점 Q 의 위치는 $(0, 1)$ 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t = t_0$ 일 때, 점 Q 의 속력을 a 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 (2) $t = t_0$ 일 때, 점 Q 의 속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의 값과 그 때의 점 Q 의 속력을 구하시오.

<27줄 이내> [40점]

2023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평면 위의 한 점 F 와 이 점을 지나지 않은 한 직선 k 가 주어질 때, 점 F 에 이르는 거리와 직선 k 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때 점 F 를 포물선의 초점, 직선 k 를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한다. 또,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준선에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 기하』

[나] 위성 방송 안테나는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전파가 포물선의 초점에 모이는 성질을 이용하여 약한 전파를 증폭하여 수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무대의 조명등은 포물선의 이런 성질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이제 포물선이 갖는 이와 같은 성질을 다음과 같이 증명해 보자.

(중략)

전파가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반사된다는 것은, 그 점을 지나는 곡선의 접선에 대하여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전파는 포물선에 반사되어 초점에 모이게 됨을 알 수 있다.

- 『고등학교 기하』

[다] 쌍곡선 $\frac{x^2}{a^2} - \frac{y^2}{b^2} = 1$ 위의 점 $P(x_1, y_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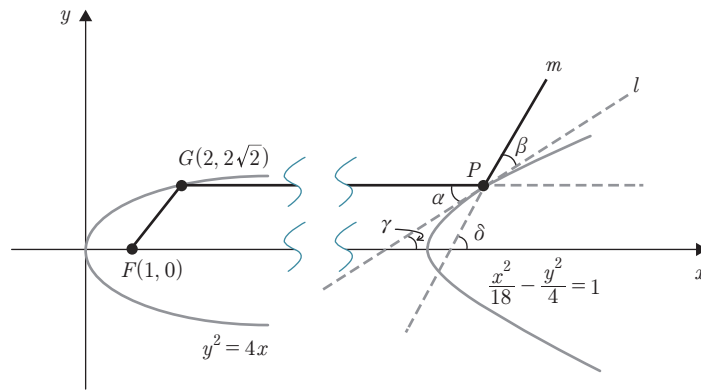
$$\frac{x_1 x}{a^2} - \frac{y_1 y}{b^2} = 1$$

이다.

- 『고등학교 기하』

문제 1

그림과 같이 단면이 포물선 모양인 거울 $y^2 = 4x (0 \leq x \leq 4)$ 의 초점 $F(1, 0)$ 에서 쏜 빛이 포물선 위의 점 $G(2, 2\sqrt{2})$ 에 반사되어 직진한다. 또한, 이 빛은 단면이 쌍곡선 모양인 거울 $\frac{x^2}{18} - \frac{y^2}{4} = 1 (3\sqrt{2} \leq x \leq 9)$ 위의 점 P 에 반사되어 직진한다. 이때, 직선 l 은 단면이 쌍곡선 모양인 거울 $\frac{x^2}{18} - \frac{y^2}{4} = 1$ 위의 점 P 에서의 접선이고, 빛이 점 P 에서 반사되기 전과 후 직선 l 과 이루는 각의 크기 α 와 β 는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직선 l 의 x 절편을 구하시오.
- (2) 직선 l 과 x 축이 이루는 예각 γ 의 크기를 구하시오.
- (3) 반사된 후 빛이 지나가는 반직선의 연장선 m 이 x 축과 이루는 예각 δ 의 크기를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질량함수가 $P(X = x_i) = p_i (i = 1, 2, 3, \dots, n)$ 일 때, X 의 기댓값(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기댓값(평균) $E(X) = x_1 p_1 + x_2 p_2 + \dots + x_n p_n$

② 분산 $V(X) = E((X - m)^2) = (x_1 - m)^2 p_1 + (x_2 - m)^2 p_2 + \dots + (x_n - m)^2 p_n$ (단, $m = E(X)$)

위 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V(X) = E(X^2) - \{E(X)\}^2 = (x_1^2 p_1 + x_2^2 p_2 + \dots + x_n^2 p_n) - m^2$$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를 포함하는 열린구간에서 연속일 때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f(x_k) \Delta x = \int_a^b f(x) dx \quad (\text{단, } \Delta x = \frac{b-a}{n}, x_k = a + k\Delta x)$$

- 『고등학교 미적분』

[다] 두 수열 $\{a_n\}, \{b_n\}$ 이 $\lim_{n \rightarrow \infty} a_n = L, \lim_{n \rightarrow \infty} b_n = M$ (L, M 은 실수)일 때

① $\lim_{n \rightarrow \infty} c a_n = cL$ (단, c 는 상수)

② $\lim_{n \rightarrow \infty} (a_n + b_n) = L + M$

④ $\lim_{n \rightarrow \infty} (a_n b_n) = LM$

③ $\lim_{n \rightarrow \infty} (a_n - b_n) = L - M$

⑤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b_n} = \frac{L}{M}$ (단, $b_n \neq 0, M \neq 0$)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2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질량함수 $P(X)$ 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고 가정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E(X)$ 와 $\lim_{n \rightarrow \infty} V(X)$ 를 구하시오.

$$\textcircled{1} P(X = x_i) = \frac{g(x_i)}{\sum_{j=1}^n g(x_j)} \quad (i = 1, 2, 3, \dots, n)$$

$$\textcircled{2} g(x) = e^{-ax} \text{ (단, } e = \lim_{x \rightarrow 0} (1+x)^{\frac{1}{x}} \text{ 이다. } a \text{는 상수이고, } a > 0 \text{ 이다.)}$$

$$\textcircled{3} \Delta x = \frac{1}{n}, x_i = i \Delta x \quad (i = 1, 2, 3, \dots, n)$$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급수 $\sum_{n=1}^{\infty} a_n$ 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_n\}$ 이 일정한 값 S 에 수렴할 때, 즉

$$\lim_{n \rightarrow \infty} S_n = \lim_{n \rightarrow \infty} \sum_{k=1}^n a_k = S$$

일 때, 이 급수는 S 에 수렴한다고 하고 $\sum_{n=1}^{\infty} a_n = S$ 와 같이 나타낸다.

- 『고등학교 미적분』

[나]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x) \geq 0$ 일 때, 정적분

$$\int_a^b f(x) dx$$

는 곡선 $y = f(x)$ 와 x 축 및 두 직선 $x = a, x =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 『고등학교 수학II』

[다]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가 $x = x(t), y = y(t)$ 일 때,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속도는 $(x'(t), y'(t))$ 이고 가속도는 $(x''(t), y''(t))$ 이다.

- 『고등학교 미적분』

[라] 닫힌구간 $[a, b]$ 의 임의의 점 x 에서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S(x)$ 인 입체도형의 부피 V 는

$$V = \int_a^b S(x) dx$$

이다. 단, $S(x)$ 는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인 함수이다.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시각 $t = 0$ 일 때 좌표평면 상의 원점 O 에서 (a, b) 의 속도로 쏘아올린 물체 M 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단, a 와 b 는 상수이고, $a > 0, b > 0$ 이다.)

- M 은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으며, 시각 t 에서 M 의 위치가 함수 $x = x(t), y = y(t)$ 로 나타내어질 때 항상 $x(t) \geq 0, y(t) \geq 0$ 이다.
- $y(t) > 0$ 인 시각 $t > 0$ 에서는 항상 M 의 가속도는 $(0, -g)$ 이다. (단, g 는 상수이고, $g > 0$ 이다.)
- M 이 x 축에 충돌하는 시각을 순서대로 $t = t_1, t_2, \dots$ ($0 < t_1 < t_2 < \dots$)라 할 때, 각각의 충돌 시각 $t = t_n$ 에 대해 충돌 전후 M 의 속도의 x 성분은 변화가 없고, 충돌 직후 M 의 속도의 y 성분은 충돌 직전 M 의 속도의 y 성분의 $-\frac{1}{2}$ 배이다.

- (1) $\lim_{n \rightarrow \infty} t_n$ 의 값을 구하시오.
- (2) M 이 그리는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 (3) 위 (2)번에서 기술한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27줄 이내> [40점]

2022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구상지 1매(빈 종이)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분가능한 함수 $y = f(x)$ 의 도함수는

$$f'(x) =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f(x + \Delta x) - f(x)}{\Delta x}$$

- 『고등학교 수학 II』

[나] 임의의 두 실수 a, b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 에 대하여 $\int f(x)dx = F(x) + C$ (C 는 적분상수)일 때

$$\int_a^b f(x)dx = [F(x)]_a^b = F(b) - F(a)$$

- 『고등학교 수학 II』

[다] $y = f(x)$ 의 도함수 $f'(x)$ 가 미분가능할 때 함수 $f'(x)$ 의 도함수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를 함수 $y = f(x)$ 의 이계도함수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f''(x), y'', \frac{d^2 y}{dx^2}, \frac{d^2}{dx^2} f(x)$$

와 같이 나타낸다.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1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y 에 대하여

$$f(x+y) - f(x-y) = 2f(y)f'(x), f(0) = 0, f(1) = a(a > 0)$$

를 만족한다고 하자. 이 때, $f'(0), f''(0), \int_0^2 f(x)dx$ 를 각각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함수 $y = f(x)$ 의 $x = t$ 에서의 미분계수 $f'(t)$ 는 곡선 $y = f(x)$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 『고등학교 수학II』

[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 x 가 $x = f(t)$ 일 때 시각 t 에서 점 P 의 속도 v 는

$$v = \frac{dx}{dt} = f'(t)$$

- 『고등학교 수학II』 / 『고등학교 미적분』

[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운동 방향은 점 P 의 속도 v 가 $v > 0$ 일 때에는 양의 방향이고, $v < 0$ 일 때에는 음의 방향이다.

- 『고등학교 수학II』

[라] 점 (x_1, y_1) 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인 직선의 방정식은

$$y - y_1 = m(x - x_1)$$

- 『고등학교 수학』

문제 2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 가 있다.

- 시각 $t = 0$ 에서 P 의 위치는 1이고 Q 의 위치는 -1 이다.
- 시각 $t = 0$ 부터 두 점 P, Q 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P 는 일정한 속도 $-\frac{1}{9}$ 로, Q 는 일정한 속도 $a(a > 0)$ 로 움직인다.

시각 $t(0 < t \leq 9)$ 에서 두 점 P, Q 의 속도는 다음의 두 경우에만 바뀐다.

- 두 점 P, Q 가 만나면 만남 직후 두 점의 속도는 서로 바뀐다.
- 두 점 P, Q 중 어떤 점의 위치가 -1 또는 1 이 된 직후 그 점의 속도는 부호만 바뀐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시각 $t = 9$ 에서 두 점 P, Q 가 다섯 번째 만나도록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두 점 P, Q 가 네 번째 만나는 시각 t 를 구하시오. 그리고 이 네 번째 만남 직후 점 P 의 속도를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 x 가 $x = f(t)$ 일 때,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속도 $v(t)$ 는

$$v(t) = \frac{dx}{dt} = f'(t)$$

- 『고등학교 수학II』

[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 에서 속도가 $v(t)$ 라고 할 때 시각 $t = a$ 에서 $t = b$ 까지 점 P 의 위치의 변화량은

$$\int_a^b v(t)dt$$

- 『고등학교 수학II』

[다] 닫힌구간 $[a, b]$ 의 임의의 점 x 에서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S(x)$ 인 입체도형의 부피 V 는

$$V = \int_a^b S(x)dx$$

이다. 단, $S(x)$ 는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인 함수이다.

- 『고등학교 미적분』

[라] 함수 $f(x)$ 가 임의의 세 실수 a, b, c 를 포함하는 닫힌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_a^c f(x)dx + \int_c^b f(x)dx = \int_a^b f(x)dx$$

- 『고등학교 수학II』

[마] 함수 $f(t)$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frac{d}{dx} \int_a^x f(t)dt = f(x)$$

이다. 단, $a < x < b$ 이다.

- 『고등학교 수학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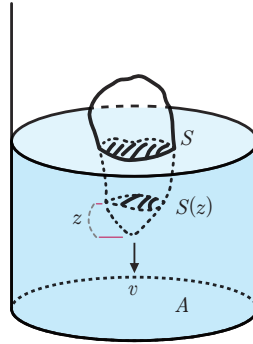
[바] 두 함수 $y = f(u)$, $u = g(x)$ 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y = f(g(x))$ 의 도함수는

$$\frac{dy}{dx} = \frac{dy}{du} \times \frac{du}{dx}, \quad y' = f'(g(x))g'(x)$$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밑면의 넓이가 $A(m^2)$ 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일정량의 물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물통에 속이 꽉 들어찬 입체도형이 아래 그림과 같이 $v(m/s)$ 의 일정한 속력으로 하강하고 있다. 수면을 확장한 평면으로 입체도형을 자른 단면의 넓이가 $S(m^2)$ 인 순간,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시오. (단, 입체도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통에 물이 많으며 또한 입체도형이 완전히 잠겨도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물통이 충분히 크고, 입체도형은 회전하지 않으며 수직으로 하강한다. 그리고 입체도형의 최하단에서 거리가 $z(m)$ 인 수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 $S(z)(m^2)$ 는 z 에 대해 연속이다.)



<27줄 이내> [40점]

2024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방정식을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초점, 꼭짓점,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평행이동에 따라 타원의 방정식과 타원의 초점과 꼭짓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는 평행이동에 따라 포물선의 방정식과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제시문 [다]는 평행이동에 따라 쌍곡선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중심, 초점, 꼭짓점,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문제1]은 주어진 방정식을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한 이차 곡선의 초점, 꼭짓점, 준선, 점근선 등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1단계) $k = 0$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1$ 이므로 중심이 $(0, 0)$ 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2단계) $k = \frac{1}{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left(\frac{1}{2}x + 1\right)^2$ 이므로

$$\frac{3}{4}x^2 - x + y^2 = 1, \frac{3}{4}\left(x - \frac{2}{3}\right)^2 + y^2 = \frac{4}{3}, \frac{\left(x - \frac{2}{3}\right)^2}{\frac{16}{9}} + \frac{y^2}{\frac{4}{3}} = 1$$

이다. 따라서, $k = \frac{1}{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 $\frac{x^2}{\frac{16}{9}} + \frac{y^2}{\frac{4}{3}} = 1$ 을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frac{2}{3}$ 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 제시문 [가]에서 $a = \frac{4}{3}, b = \frac{2\sqrt{3}}{3}, c = \sqrt{a^2 - b^2} = \frac{2}{3}$ 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left(\frac{4}{3}, 0\right), (0, 0)$ 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2, 0), \left(-\frac{2}{3}, 0\right), \left(\frac{2}{3}, \frac{2\sqrt{3}}{3}\right), \left(\frac{2}{3}, -\frac{2\sqrt{3}}{3}\right)$ 이 된다.

(3단계) $k = 1$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x + 1)^2$ 이므로

$$y^2 = 2x + 1 = 2\left(x + \frac{1}{2}\right)$$

이다. 따라서, $k = 1$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 $y^2 = 2x$ 을 x 축의 방향으로 $-\frac{1}{2}$ 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p = \frac{1}{2}$ 가 되므로 초점의 좌표는 $(0, 0)$ 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 = -1$ 이다.

(4단계) $k = 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2x + 1)^2$ 이므로

$$3x^2 + 4x - y^2 = -1, 3\left(x + \frac{2}{3}\right)^2 - y^2 = \frac{1}{3}, \frac{\left(x + \frac{2}{3}\right)^2}{\frac{1}{9}} - \frac{y^2}{\frac{1}{3}} = 1$$

이다. 따라서, $k = 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 $\frac{x^2}{\frac{1}{9}} - \frac{y^2}{\frac{1}{3}} = 1$ 을 x 축의 방향으로 $-\frac{2}{3}$ 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이

된다. 제시문 [다]에서 $a = \frac{1}{3}, b = \frac{\sqrt{3}}{3}, c = \sqrt{a^2 + b^2} = \frac{2}{3}$ 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0, 0), \left(-\frac{4}{3}, 0\right)$ 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 = \pm\sqrt{3}\left(x + \frac{2}{3}\right)$ 이다.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작성하고 세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A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작성하고 두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B
	[1단계]부터 [4단계]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두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C
	[1단계]부터 [4단계]중 두 단계를 작성하고 한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D
하	[1단계]부터 [4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을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k = 0$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1$ 이므로 중심이 $(0, 0)$ 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2) $k = \frac{1}{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left(\frac{1}{2}x + 1\right)^2$ 이므로

$$\frac{3}{4}x^2 - x + y^2 = 1, \frac{3}{4}\left(x - \frac{2}{3}\right)^2 + y^2 = \frac{4}{3}, \frac{\left(x - \frac{2}{3}\right)^2}{\frac{16}{9}} + \frac{y^2}{\frac{4}{3}} = 1$$

이다. 따라서, $k = \frac{1}{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 $\frac{x^2}{\frac{16}{9}} + \frac{y^2}{\frac{4}{3}} = 1$ 을 x 축의 양의 방향으로 $\frac{2}{3}$ 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 제시문 [가]에서 $a = \frac{4}{3}, b = \frac{2\sqrt{3}}{3}, c = \sqrt{a^2 - b^2} = \frac{2}{3}$ 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left(\frac{4}{3}, 0\right), (0, 0)$ 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2, 0), \left(-\frac{2}{3}, 0\right), \left(\frac{2}{3}, \frac{2\sqrt{3}}{3}\right), \left(\frac{2}{3}, -\frac{2\sqrt{3}}{3}\right)$ 이 된다.

(3) $k = 1$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x + 1)^2$ 이므로

$$y^2 = 2x + 1 = 2\left(x + \frac{1}{2}\right)$$

이다. 따라서, $k = 1$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 $y^2 = 2x$ 을 x 축의 방향으로 $-\frac{1}{2}$ 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p = \frac{1}{2}$ 가 되므로 초점의 좌표는 $(0, 0)$ 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 = -1$ 이다.

(4) $k = 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 + y^2 = (2x + 1)^2$ 이므로

$$3x^2 + 4x - y^2 = -1, 3\left(x + \frac{2}{3}\right)^2 - y^2 = \frac{1}{3}, \frac{\left(x + \frac{2}{3}\right)^2}{\frac{1}{9}} - \frac{y^2}{\frac{1}{3}} = 1$$

이다. 따라서, $k = 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 $\frac{x^2}{\frac{1}{9}} - \frac{y^2}{\frac{1}{3}} = 1$ 을 x 축의 방향으로 $-\frac{2}{3}$ 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이

된다. 제시문 [다]에서 $a = \frac{1}{3}, b = \frac{\sqrt{3}}{3}, c = \sqrt{a^2 + b^2} = \frac{2}{3}$ 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0, 0), \left(-\frac{4}{3}, 0\right)$ 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 = \pm\sqrt{3}\left(x + \frac{2}{3}\right)$ 이다.

문제 02

출제의도

[문제2]는 고등학교 미적분의 역함수 미분법, 탄젠트함수의 덧셈정리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분을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하고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항해설

[문제2]의 (1)은 기울기와 탄젠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역함수 미분법과 탄젠트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문제이다. [문제2]의 (2)는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며 (3)은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평가기준

[1단계] 곡선 $y = f(x)$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 = \cos t + 4$ 이고, 이 접선과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α 라고 하면 $\tan \alpha = f'(t) = \cos t + 4$ 이다. 또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곡선 $y = f^{-1}(x)$ 위의 점 $(f(t), 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1}{f'(t)}$ 이고, 이 접선과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β 라고 하면 $\tan \beta = \frac{1}{f'(t)}$ 이다.

[2단계] 그러므로 $g(t) = \tan \theta = \tan(\alpha - \beta) = \frac{\tan \alpha - \tan \beta}{1 + \tan \alpha \tan \beta} = \frac{(f'(t))^2 - 1}{2f'(t)}$ 이다.

$f'\left(\frac{\pi}{2}\right) = 4$ 이므로 $g\left(\frac{\pi}{2}\right) = \frac{15}{8}$ 이다.

[3단계] $g(t) = \frac{(\cos t + 4)^2 - 1}{2(\cos t + 4)}$ 에서 $\cos t + 4 = s$ ($3 \leq s \leq 5$)로 치환하면 $g(t)$ 의 최솟값은 $h(s) = \frac{s^2 - 1}{2s}$ ($3 \leq s \leq 5$)의 최솟값과 같다. $h'(s) = \frac{1 + s^2}{2s^2} > 0$ 이므로 $h(s)$ 는 구간 $[3, 5]$ 에서 증가함수이다.

[4단계] $s = 3$ 일 때, 함수 $g(t)$ 의 최솟값은 $h(3) = \frac{4}{3}$ 이다.

[5단계] $x = f(t)$ ($0 \leq t \leq 2\pi$)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면

$$\int_{f(0)}^{f(2\pi)} g(f^{-1}(x)) dx = \int_0^{2\pi} g(t) f'(t) dt$$

[6단계] 그런데 $g(t) = \frac{(f'(t))^2 - 1}{2f'(t)}$ 이고 $f'(t) = \cos t + 4$ 이므로

$$\int_{f(0)}^{f(2\pi)} g(f^{-1}(x)) dx = \int_0^{2\pi} \frac{1}{2} ((\cos t + 4)^2 - 1) dt = \frac{1}{2} \int_0^{2\pi} (\cos^2 t + 8 \cos t + 15) dt \text{ 이고}$$

$$\int_0^{2\pi} \cos^2 t dt = \int_0^{2\pi} \frac{\cos 2t + 1}{2} dt = \left[\frac{\sin 2t}{4} + \frac{t}{2} \right]_0^{2\pi} = \pi, \int_0^{2\pi} \cos t dt = [\sin t]_0^{2\pi} = 0 \text{ 이다.}$$

따라서 $\int_{f(0)}^{f(2\pi)} g(f^{-1}(x)) dx = \frac{1}{2} \int_0^{2\pi} (\cos^2 t + 8 \cos t + 15) dt = \frac{31\pi}{2}$ 이다.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1단계]부터 [6단계]까지 5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A
중	[1단계]부터 [6단계]까지 4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B
	[1단계]부터 [6단계]까지 3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C
	[1단계]부터 [6단계]까지 2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D
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을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곡선 $y = f(x)$ 위의 점 $(t, f(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 = \cos t + 4$ 이고, 이 접선과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α 라고 하면 $\tan \alpha = f'(t) = \cos t + 4$ 이다. 또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곡선 $y = f^{-1}(x)$ 위의 점 $(f(t), 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1}{f'(t)}$ 이고, 이 접선과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β 라고 하면 $\tan \beta = \frac{1}{f'(t)}$ 이다.

그러므로 $g(t) = \tan \theta = \tan(\alpha - \beta) = \frac{\tan \alpha - \tan \beta}{1 + \tan \alpha \tan \beta} = \frac{(f'(t))^2 - 1}{2f'(t)}$ 이다. $f'\left(\frac{\pi}{2}\right) = 4$ 이므로 $g\left(\frac{\pi}{2}\right) = \frac{15}{8}$ 이다.

(2) $g(t) = \frac{(\cos t + 4)^2 - 1}{2(\cos t + 4)}$ 에서 $\cos t + 4 = s (3 \leq s \leq 5)$ 로 치환하면 $g(t)$ 의 최솟값은 $h(s) = \frac{s^2 - 1}{2s} (3 \leq s \leq 5)$ 의 최솟값과 같다. $h'(s) = \frac{1 + s^2}{2s^2} > 0$ 이므로 $h(s)$ 는 구간 $[3, 5]$ 에서 증가함수이고 $s = 3$ 일 때, 함수 $g(t)$ 의 최솟값은 $h(3) = \frac{4}{3}$ 이다.

(3) $x = f(t) (0 \leq t \leq 2\pi)$ 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면

$\int_{f(0)}^{f(2\pi)} g(f^{-1}(x)) dx = \int_0^{2\pi} g(t) f'(t) dt$ 이다. 그런데 $g(t) = \frac{(f'(t))^2 - 1}{2f'(t)}$ 이고 $f'(t) = \cos t + 4$ 이므로

$\int_{f(0)}^{f(2\pi)} g(f^{-1}(x)) dx = \int_0^{2\pi} \frac{1}{2} ((\cos t + 4)^2 - 1) dt = \frac{1}{2} \int_0^{2\pi} (\cos^2 t + 8 \cos t + 15) dt$ 이고

$\int_0^{2\pi} \cos^2 t dt = \int_0^{2\pi} \frac{\cos 2t + 1}{2} dt = \left[\frac{\sin 2t}{4} + \frac{t}{2} \right]_0^{2\pi} = \pi, \int_0^{2\pi} \cos t dt = [\sin t]_0^{2\pi} = 0$ 이다.

따라서 $\int_{f(0)}^{f(2\pi)} g(f^{-1}(x)) dx = \frac{1}{2} \int_0^{2\pi} (\cos^2 t + 8 \cos t + 15) dt = \frac{31\pi}{2}$ 이다.

문제 03

출제의도

[문제3]은 좌표평면에서 특정한 점의 위치를 시각 t 에 대해 나타내고, 이를 시각 t 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이 점에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속도 계산 과정에서 음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주안을 두어 평가한다. 또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통해 주어진 함수를 나타내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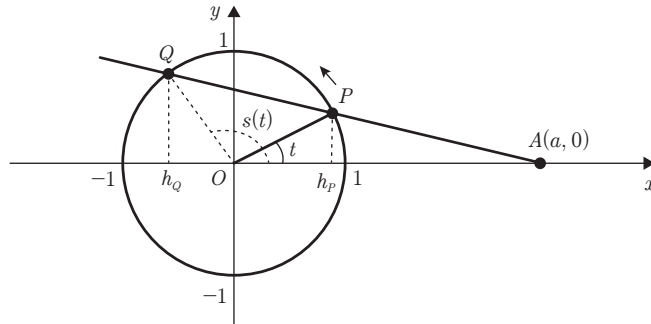
문항해설

문항(1)은 점 $Q, P, A(a, 0)$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이 관계식으로부터 시각 t 에서 점 Q 의 속도를 구하며, 이를 통하여 Q 가 주어진 위치에 도착할 때의 속력을 계산한다.

문항(2)는 점 Q 가 $(0, 1)$ 일 때, 삼각함수의 덧셈공식을 이용하여 t_0 를 a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a 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 속력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속력의 최댓값을 구한다.

평가기준

[1단계]



위 그림과 같이 시각 t 에 원점 O 와 점 Q 를 잇는 직선 OQ 과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s(t)$ 라 하자. Q 는 원 위를 움직이므로, Q 의 좌표는 $(\cos s(t), \sin s(t))$ 이고, 속력은 $\sqrt{(\sin^2 s(t) + \cos^2 s(t))\left(\frac{ds}{dt}\right)^2} = \left|\frac{ds}{dt}\right|$ 이다. 점 Q, P 로부터 각각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_Q, h_P 라 하면, $\angle QAh_Q = \angle PAh_P$ 이므로, $\tan(\angle QAh_Q) = \tan(\angle PAh_P)$ 이고, 다음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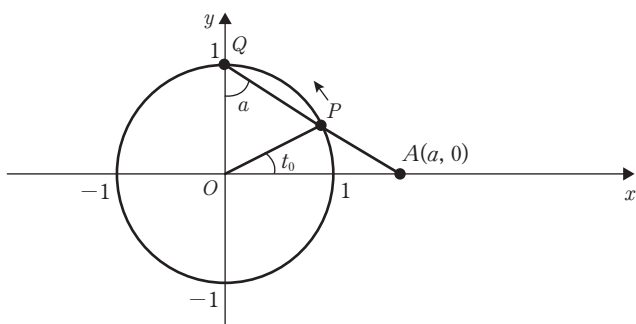
$$\frac{\sin s(t)}{a - \cos s(t)} = \frac{\sin t}{a - \cos t}$$

[2단계] 이를 정리하면 $(a - \cos t) \sin s(t) - \sin t(a - \cos s(t)) = 0$ 이고,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sin t \sin s(t) + (a - \cos t) \cos s(t) \frac{ds}{dt} - \cos t(a - \cos s(t)) - \sin t \sin s(t) \frac{ds}{dt} = 0$$

점 Q 가 점 $(0, 1)$ 을 지날 때, $s(t) = \frac{\pi}{2}$ 이므로 $\sin s(t) = 1, \cos s(t) = 0$ 이고, $t = t_0$ 이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t = t_0$ 에서 Q 의 속력은 $\left|\frac{ds}{dt}\right| = \left|1 - a \frac{\cos t_0}{\sin t_0}\right|$ 이다.

[3단계]



위 그림과 같이 점 Q 의 위치가 $(0, 1)$ 인 상황에서 $\angle AQO = \alpha$ 라 하면, $\tan \alpha = a$ 이다. 한편, 직선 OQ 와 직선 OP 의 길이가 같으므로 $\angle QPO = \alpha$ 이고, $t_0 + \frac{\pi}{2} = 2\alpha$ 가 성립한다.

따라서, $\frac{\cos\left(2\alpha - \frac{\pi}{2}\right)}{\sin\left(2\alpha - \frac{\pi}{2}\right)} = \frac{\sin(2\alpha)}{-\cos(2\alpha)} = -\tan 2\alpha = -\frac{2 \tan \alpha}{1 - \tan^2 \alpha} = \frac{2a}{a^2 - 1}$ 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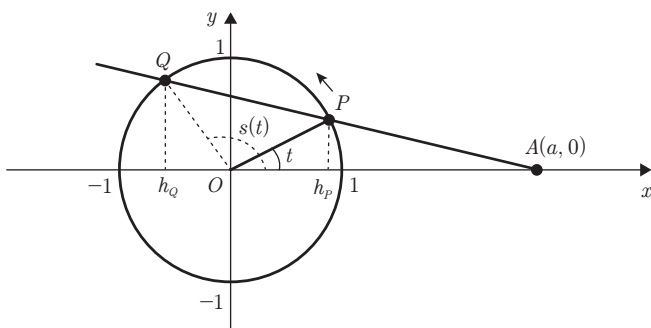
Q 의 속력은 $\left|1 - \frac{2a^2}{a^2 - 1}\right| = \left|-1 - \frac{2}{a^2 - 1}\right| = 1 + \frac{2}{a^2 - 1}$ ($a \geq 2$ 이므로)이다.

[4단계] $1 + \frac{2}{a^2 - 1}$ 는 $2 \leq a \leq 3$ 에서 감소함수이므로, 점 Q 의 속력은 $a = 2$ 일 때 최대이고, 그 값은 $1 + \frac{2}{3} = \frac{5}{3}$ 이다.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모든 단계를 잘 작성하였으나 [3단계] 답에서 절대값 생략하거나 [4단계]에서 논증이 부족할 경우	A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B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C
	[1단계]부터 [2단계]의 음함수 표현까지 올바르게 작성한 경우	D
하	[1단계]까지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문항(1)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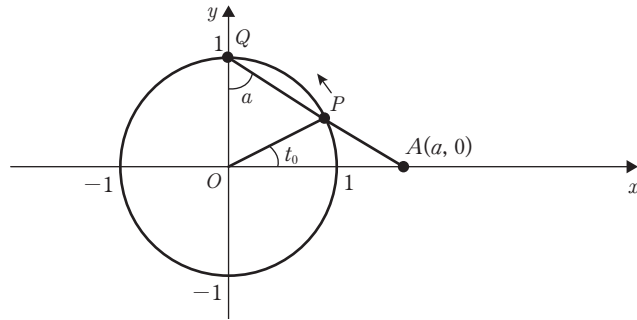
위 그림과 같이 시각 t 에 원점 O 와 점 Q 를 잇는 직선 OQ 와 x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s(t)$ 라 하자. Q 는 원 위를 움직이므로, Q 의 좌표는 $(\cos s(t), \sin s(t))$ 이고, 속력은 $\sqrt{(\sin^2 s(t) + \cos^2 s(t))\left(\frac{ds}{dt}\right)^2} = \left|\frac{ds}{dt}\right|$ 이다. 점 Q , P 로부터 각각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_Q, h_P 라 하면, $\angle QAh_Q = \angle PAh_P$ 이므로, $\tan(\angle QAh_Q) = \tan(\angle PAh_P)$ 이고, 다음을 얻는다.

$$\frac{\sin s(t)}{a - \cos s(t)} = \frac{\sin t}{a - \cos t}$$

이를 정리하면 $(a - \cos t) \sin s(t) - \sin t(a - \cos s(t)) = 0$ 이고,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sin t \sin s(t) + (a - \cos t) \cos s(t) \frac{ds}{dt} - \cos t(a - \cos s(t)) - \sin t \sin s(t) \frac{ds}{dt} = 0$$

점 Q 가 점 $(0, 1)$ 을 지날 때, $s(t) = \frac{\pi}{2}$ 이므로 $\sin s(t) = 1$, $\cos s(t) = 0$ 이고, $t = t_0$ 이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t = t_0$ 에서 Q 의 속력은 $\left|\frac{ds}{dt}\right| = \left|1 - a \frac{\cos t_0}{\sin t_0}\right|$ 이다.



위 그림과 같이 점 Q 의 위치가 $(0, 1)$ 인 상황에서 $\angle AQO = \alpha$ 라 하면, $\tan \alpha = a$ 이다. 한편, 직선 OQ 와 직선 OP 의 길이가 같으므로 $\angle QPO = \alpha$ 이고, $t_0 + \frac{\pi}{2} = 2\alpha$ 가 성립한다.

따라서, $\frac{\cos\left(2\alpha - \frac{\pi}{2}\right)}{\sin\left(2\alpha - \frac{\pi}{2}\right)} = \frac{\sin(2\alpha)}{-\cos(2\alpha)} = -\tan 2\alpha = -\frac{2 \tan \alpha}{1 - \tan^2 \alpha} = \frac{2a}{a^2 - 1}$ 이고,

Q 의 속력은 $\left|1 - \frac{2a^2}{a^2 - 1}\right| = \left|-1 - \frac{2}{a^2 - 1}\right| = 1 + \frac{2}{a^2 - 1}$ ($a \geq 2$ 이므로)이다.

[문항(2) 풀이]

$1 + \frac{2}{a^2 - 1}$ 는 $2 \leq a \leq 3$ 에서 감소함수이므로, 점 Q 의 속력은 $a = 2$ 일 때 최대이고, 그 값은 $1 + \frac{2}{3} = \frac{5}{3}$ 이다.

2023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포물선의 초점과 관련된 성질과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관련된 점과 각을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 포물선의 정의와 초점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 포물선이 초점에서 출발한 빛이 포물선을 만나서 축과 평행으로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제시문 [다] 주어진 점에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	S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모두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A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	B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기술한 경우	C
	[1단계]부터 [2단계]까지의 과정을 기술한 경우	D
하	위 단계 중 한 단계만 기술한 경우	E
	어느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1단계] 점 $G(2, 2\sqrt{2})$ 에 부딪쳐 진행하는 빛이 x 축과 평행함을 인지하고 쌍곡선과 만나는 점 $P(3\sqrt{6}, 2\sqrt{2})$ 를 구하였다.

포물선의 초점 $F(1, 0)$ 에서 점 $G(2, 2\sqrt{2})$ 에 부딪쳐 진행하는 빛은 제시문 [나]에 의해 x 축과 평행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이 빛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P 는 $(3\sqrt{6}, 2\sqrt{2})$ 이다.

[2단계] 쌍곡선 위의 점 P 를 지나는 접선 l 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직선의 x 절편 $\sqrt{6}$ 을 구하였다.

이 점에서 쌍곡선의 접선 l 은 제시문 [다]에 의해 $\frac{3\sqrt{6}x}{18} - \frac{2\sqrt{2}y}{4} = 1$ 이고, l 의 x 절편은 $\sqrt{6}$ 이다.

[3단계] 접선 l 이 x 축과 이루는 예각 $\gamma = \frac{\pi}{6}$ 를 구하였다.

접선의 방정식은 $y = \frac{1}{\sqrt{3}}x - \sqrt{2}$ 이고, $\tan \gamma = \frac{1}{\sqrt{3}}$ 이므로 $\gamma = \frac{\pi}{6}$ 이다.

[4단계] 점 P 에 부딪힌 후의 직선 m 이 x 축과 이루는 예각 $\delta = \frac{\pi}{3}$ 를 구할 수 있다.

점 P 에 반사되기 전 빛의 직진방향은 x 축과 평행하고, 이 빛의 방향과 접선 l 이 이루는 각 α 는 접선 l 이 x 축과 이루는 각 γ 와 엇각 $\frac{\pi}{6}$ 로 같다. 또한, 각 α 는 각 β 와 같으므로 이 각 β 는 $\frac{\pi}{6}$ 이다. 그런데, 반사되기 전 빛과 x 축이 평행하므로 직선 m 과 이루는 각 δ 는 각 $\beta + \gamma$ 와 동위각으로 같다. 따라서, 점 P 에 반사된 빛의 직진방향이 x 축과 이루는 각 δ 는 $\frac{\pi}{6} + \frac{\pi}{6} = \frac{\pi}{3}$ 이다.

예시답안

(1) 포물선의 초점 $F(1, 0)$ 에서 점 $G(2, 2\sqrt{2})$ 에 부딪쳐 진행하는 빛은 제시문 [나]에 의해 x 축과 평행하게 진행한 다. 따라서, 이 빛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 P 는 $(3\sqrt{6}, 2\sqrt{2})$ 이다.

이 점에서 쌍곡선의 접선 l 은 제시문 [다]에 의해

$$\frac{3\sqrt{6}x}{18} - \frac{2\sqrt{2}y}{4} = 1$$

이고, l 의 x 절편은 $\sqrt{6}$ 이다.

(2) 접선의 방정식은

$$y = \frac{1}{\sqrt{3}}x - \sqrt{2}$$

이고, $\tan \gamma = \frac{1}{\sqrt{3}}$ 이므로 $\gamma = \frac{\pi}{6}$ 이다.

(3) 점 P 에 반사되기 전 빛의 직진방향은 x 축과 평행하고, 이 빛의 방향과 접선 l 이 이루는 각 α 는 접선 l 이 x 축과 이루는 각 γ 와 엇각 $\frac{\pi}{6}$ 로 같다. 또한, 각 α 는 각 β 와 같으므로 이 각 β 는 $\frac{\pi}{6}$ 이다. 그런데, 반사되기 전 빛과 x 축이 평행하므로 직선 m 과 이루는 각 δ 는 각 $\beta + \gamma$ 와 동위각으로 같다. 따라서, 점 P 에 반사된 빛의 직진방향이 x 축과 이루는 각 δ 는 $\frac{\pi}{6} + \frac{\pi}{6} = \frac{\pi}{3}$ 이다.

문제 02

출제의도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분산의 극한을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및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문항해설

[문항 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분산의 극한을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분산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시문 [다]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 설명하였다.

평가기준

출제 의도에 가장 잘 들어맞는 답안의 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이산확률변수 X 의 기댓값 $E(X)$ 을 정의에 맞게 표현하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및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기댓값의 극한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었다.

[2단계] 정적분으로 표현된 기댓값 $E(X)$ 의 극한을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구하였다.

[3단계] 이산확률변수의 분산 $V(X)$ 을 정의에 맞게 표현하고($V(X) = E(X^2) - E(X)^2$),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및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활용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E(X^2)$ 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었다.

[4단계] 정적분으로 표현된 $\lim_{n \rightarrow \infty} E(X^2)$ 을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그 값을 구하였다.

[5단계] $\lim_{n \rightarrow \infty} E(X^2)$ 을 정확히 나타내었다.

[6단계] 분산의 극한 $\lim_{n \rightarrow \infty} V(X)$ 의 정확한 값을 구하였다.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모두 보인 경우	S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모두 보인 경우	A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모두 보인 경우	B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보인 경우	C
	[1단계]부터 [2단계]까지를 모두 보인 경우	D
하	[1단계]만 보인 경우	E
	어느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단계]

$$\text{제시문 [가]에 의해 } E(X) = \sum_{i=1}^n x_i P(X = x_i) = \sum_{i=1}^n x_i \frac{g(x_i)}{\sum_{j=1}^n g(x_j)} = \frac{\sum_{i=1}^n x_i g(x_i)}{\sum_{j=1}^n g(x_j)}$$

제시문 [나]를 활용하면 연속인 함수 $h(x) = xg(x)$ 와 $g(x)$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sum_{i=1}^n h(x_i) \Delta x &= \int_0^1 h(x) dx = \int_0^1 x e^{-ax} dx \\ \lim_{n \rightarrow \infty} \sum_{j=1}^n g(x_j) \Delta x &= \int_0^1 g(x) dx = \int_0^1 e^{-ax} dx \end{aligned}$$

즉, 두 급수는 닫힌구간 $[0, 1]$ 에서 연속인 함수의 정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함수 $h(x) \geq 0$ (또는 $g(x) > 0$), x 축, 직선 $x = 0$ 과 직선 $x = 1$ 로 둘러싸인 넓이이므로 두 급수 모두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E(X)$ 의 극한은 제시문 [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lim_{n \rightarrow \infty} E(X) = \lim_{n \rightarrow \infty} \frac{\sum_{i=1}^n h(x_i) \Delta x}{\sum_{j=1}^n g(x_j) \Delta x} = \frac{\lim_{n \rightarrow \infty} \sum_{i=1}^n h(x_i) \Delta x}{\lim_{n \rightarrow \infty} \sum_{j=1}^n g(x_j) \Delta x} = \frac{\int_0^1 h(x) dx}{\int_0^1 g(x) dx} = \frac{a \int_0^1 x e^{-ax} dx}{a \int_0^1 e^{-ax} dx} = \frac{\int_0^1 a x e^{-ax} dx}{1 - e^{-a}}$$

[2단계]

위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구한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E(X) &= \frac{1}{1 - e^{-a}} \int_0^1 a x e^{-ax} dx = \frac{1}{1 - e^{-a}} \left\{ [-x e^{-ax}]_0^1 - \int_0^1 (-e^{-ax}) dx \right\} \\ &= \frac{1}{1 - e^{-a}} \left\{ -e^{-a} - \frac{1}{a} (e^{-a} - 1) \right\} \\ &= \frac{1}{a} - \frac{e^{-a}}{1 - e^{-a}} \end{aligned}$$

[3단계]

제시문 [가]에 의해 $V(X) = E(X^2) - \{E(X)\}^2$ 이다.

먼저 $E(X^2)$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E(X^2) = \sum_{i=1}^n x_i^2 P(X = x_i) = \sum_{i=1}^n x_i^2 \frac{g(x_i)}{\sum_{j=1}^n g(x_j)} = \frac{\sum_{i=1}^n x_i^2 g(x_i)}{\sum_{j=1}^n g(x_j)}$$

위 $E(X)$ 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f(x) = x^2 g(x)$ 라 하면

$$\lim_{n \rightarrow \infty} \sum_{i=1}^n f(x_i) \Delta x = \int_0^1 f(x) dx = \int_0^1 x^2 e^{-ax} dx$$

이고 이 급수는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lim_{n \rightarrow \infty} E(X^2)$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lim_{n \rightarrow \infty} E(X^2) = \lim_{n \rightarrow \infty} \frac{\sum_{i=1}^n f(x_i) \Delta x}{\sum_{j=1}^n g(x_j) \Delta x} = \frac{\lim_{n \rightarrow \infty} \sum_{i=1}^n f(x_i) \Delta x}{\lim_{n \rightarrow \infty} \sum_{j=1}^n g(x_j) \Delta x} = \frac{\int_0^1 ax^2 e^{-ax} dx}{1 - e^{-a}}$$

[4단계]

$\lim_{n \rightarrow \infty} E(X^2)$ 는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E(X^2) &= \frac{1}{1 - e^{-a}} \int_0^1 ax^2 e^{-ax} dx = \frac{1}{1 - e^{-a}} \left\{ [-x^2 e^{-ax}]_0^1 - \int_0^1 (-2xe^{-ax}) dx \right\} \\ &= -\frac{e^{-a}}{1 - e^{-a}} + \frac{2}{a} \left\{ \frac{1}{a} - \frac{e^{-a}}{1 - e^{-a}} \right\} \end{aligned}$$

[5단계]

앞에서 구한 $\lim_{n \rightarrow \infty} E(X)$ 를 이용하고 제시문 [다]를 적용하면

$$\lim_{n \rightarrow \infty} \{E(X)\}^2 = \left\{ \frac{1}{a} - \frac{e^{-a}}{1 - e^{-a}} \right\}^2$$

[6단계]

따라서, $\lim_{n \rightarrow \infty} V(X)$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aligned} \lim_{n \rightarrow \infty} V(X) &= \lim_{n \rightarrow \infty} E(X^2) - \lim_{n \rightarrow \infty} \{E(X)\}^2 = \frac{e^{-a}}{1 - e^{-a}} + \frac{2}{a} \left\{ \frac{1}{a} - \frac{e^{-a}}{1 - e^{-a}} \right\} - \left\{ \frac{1}{a} - \frac{e^{-a}}{1 - e^{-a}} \right\}^2 \\ &= \frac{1}{a^2} - \frac{e^{-a}}{1 - e^{-a}} \left\{ 1 + \frac{e^{-a}}{1 - e^{-a}} \right\} = \frac{1}{a^2} - \frac{e^{-a}}{(1 - e^{-a})^2} \end{aligned}$$

문제 03

출제의도

본 문항은 좌표평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를 알면,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이용하여 물체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항으로 갖는 수열이 등비수열임을 알아냄으로써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등비급수가 되어 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유사하게,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도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해설

좌표평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를 알면,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물체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항으로 갖는 수열이 등비수열임을 알아냄으로써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등비급수가 되어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유사하게,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도 계산할 수 있다.

평가기준

[1단계] $0 \leq t \leq t_1$ 일 때 물체 M 의 속도 $(x'(t), y'(t))$ 는 $x'(t) = a, y'(t) = b - gt$ 가 되고 이를 다시 적분하면 M 의 위치 $(x(t), y(t))$ 는 $x(t) = at, y(t) = bt - \frac{1}{2}gt^2$ 가 된다.

[2단계] 위 식에서 $y(t) = 0$ 을 계산하면 $t_1 = \frac{2b}{g}$ 를 얻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t_n = \sum_{k=1}^n \left(\frac{2b}{g} \cdot \frac{1}{2^{k-1}} \right)$, 즉 $\lim_{n \rightarrow \infty} t_n$ 은 첫째항이 $\frac{2b}{g}$ 이고 공비가 $\frac{1}{2}$ 인 등비급수가 되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t_n = \sum_{n=1}^{\infty} \left(\frac{2b}{g} \cdot \frac{1}{2^{n-1}} \right) = \frac{2b}{g} + \frac{b}{g} + \frac{b}{2g} + \dots = \frac{2b}{g} \cdot \frac{1}{1 - \frac{1}{2}} = \frac{4b}{g}$$

이다.

[3단계]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항으로 갖는 수열 $\{A_n\}$ 은 첫째항이 $\frac{2ab^3}{3g}$ 이고 공비가 $\frac{1}{8}$ 인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sum_{n=1}^{\infty} A_n = \frac{2ab^3}{3g^2} \cdot \frac{1}{1 - \frac{1}{8}} = \frac{16ab^3}{21g^2}$$

이다.

[4단계] 각각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항으로 갖는 수열 $\{V_n\}$ 은 첫째항이 $\frac{4ab^5}{15g^3}$ 이고 공비가 $\frac{1}{32}$ 인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구하고자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sum_{n=1}^{\infty} V_n = \frac{4ab^5}{15g^3} \cdot \frac{1}{1 - \frac{1}{32}} = \frac{128ab^5}{465g^3}$$

이다.

	평가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1단계]와 [2단계]를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하고 [3단계] 또는 [4단계] 중에서 한 단계만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A
중	[1단계]와 [2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하고 [3단계] 또는 [4단계] 중에서 한 단계의 일부만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B
	[1단계]와 [2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하고 [3단계]와 [4단계]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어도 모두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C
	[1단계]만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하고 [2단계]부터 [4단계]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어도 모두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D
하	[1단계]부터 [4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의 일부만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을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시각 $t = 0$ 일 때 원점 O 에서 물체 M 의 속도의 x 성분은 a 이고 $y(t) > 0$ 인 시각 $t > 0$ 에서 $x''(t) = 0$ 이므로 이를 적분하면 $0 \leq t \leq t_1$ 일 때 $x'(t) = a$ 이다. 충돌 시각 $t = t_1$ 에 대해 충돌 전후 M 의 속도의 x 성분은 변화가 없다는 조건에 의해 $t_1 \leq t \leq t_2$ 일 때에도 $x'(t) = a$ 이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시각 $t \geq 0$ 에 대해 $x'(t) = a$, 즉 $x(t) = at$ 가 된다.

시각 $t = 0$ 일 때 원점 O 에서 M 의 속도의 y 성분은 b 이고 $y(t) > 0$ 인 시각 $t > 0$ 에서 $y''(t) = -g$ 이므로 이를 적분하면 $0 \leq t \leq t_1$ 일 때 $y'(t) = b - gt$ 가 되고 이를 다시 적분하면 $y(t) = bt - \frac{1}{2}gt^2$ 을 얻는다. 여기서 $y(t_1) = 0$ 을 계산하면 $t_1 = \frac{2b}{g}$ 를 얻고, 시각 $t = t_1$ 일 때 x 축에 충돌 직전의 속도는 $\lim_{t \rightarrow t_1^-} y'(t) = -b$ 가 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t_2 = \frac{2b}{g} + \frac{b}{g}$, $t_3 = \frac{2b}{g} + \frac{b}{g} + \frac{b}{2g}$, ... 을 얻게 되어 귀납적 추론에 의해 t_n 은 $t_n = \sum_{k=1}^n \left(\frac{2b}{g} \cdot \frac{1}{2^{k-1}} \right)$, 즉 $\lim_{n \rightarrow \infty} t_n$ 은 첫째항이 $\frac{2b}{g}$ 이고 공비가 $\frac{1}{2}$ 인 등비급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m_{n \rightarrow \infty} t_n = \sum_{n=1}^{\infty} \left(\frac{2b}{g} \cdot \frac{1}{2^{n-1}} \right) = \frac{2b}{g} + \frac{b}{g} + \frac{b}{2g} + \cdots = \frac{2b}{g} \cdot \frac{1}{1 - \frac{1}{2}} = \frac{4b}{g}$$

이다.

(2) 위 (1)번 계산으로부터 $0 \leq t \leq t_1$ 일 때 $x = x(t) = at$, $y = y(t) = bt - \frac{1}{2}gt^2$ 이다. 이제 $y = bt - \frac{1}{2}gt^2$ 에 $t = \frac{x}{a}$ 를 대입하면 $0 \leq t \leq t_1$ 인 동안에 M이 그리는 곡선의 방정식은

$$y = \frac{b}{a}x - \frac{g}{2a^2}x^2 \quad \left(0 \leq x \leq \frac{2ab}{g} \right)$$

가 되고 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_1 은

$$A_1 = \int_0^{\frac{2ab}{g}} \left(\frac{b}{a}x - \frac{g}{2a^2}x^2 \right) dx = \left[\frac{b}{2a}x^2 - \frac{g}{6a^2}x^3 \right]_0^{\frac{2ab}{g}} = \frac{2ab^3}{3g^2}$$

이 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t_1 \leq t \leq t_2$ 인 동안 M이 그리는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_2 는 $A_2 = \frac{1}{8} \cdot \frac{2ab^3}{3g^2}$ 이 되고, $t_2 \leq t \leq t_3$ 인 동안 M이 그리는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A_3 는

$$A_3 = \frac{1}{8^2} \cdot \frac{2ab^3}{3g^2}, \dots \text{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 수열 } \{A_n\} \text{은 첫째항이 } \frac{2ab^3}{3g^2} \text{이고 공비}$$

가 $\frac{1}{8}$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sum_{n=1}^{\infty} A_n = \frac{2ab^3}{3g^2} + \frac{1}{8} \cdot \frac{2ab^3}{3g^2} + \frac{1}{8^2} \cdot \frac{2ab^3}{3g^2} + \cdots = \frac{2ab^3}{3g^2} \cdot \frac{1}{1 - \frac{1}{8}} = \frac{16ab^3}{21g^2}$$

이 된다.

(3) 위 (2)번의 풀이에서 $0 \leq t \leq t_1$ 인 동안 M이 그리는 곡선의 방정식은 $y = \frac{b}{a}x - \frac{g}{2a^2}x^2$ ($0 \leq x \leq \frac{2ab}{g}$)가 됨을 구하였다. 이제 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 V_1 은

$$V_1 = \int_0^{\frac{2ab}{g}} \left(\frac{b}{a}x - \frac{g}{2a^2}x^2 \right)^2 dx = \left[\frac{g^2}{20a^4}x^5 - \frac{bg}{4a^3}x^4 + \frac{b^2}{3a^2}x^3 \right]_0^{\frac{2ab}{g}} = \frac{4ab^5}{15g^3}$$

이 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t_1 \leq t \leq t_2$ 인 동안 M이 그리는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 V_2 는 $V_2 = \frac{1}{32} \cdot \frac{4ab^5}{15g^3}$ 이 되고, $t_2 \leq t \leq t_3$

인 동안 M이 그리는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 V_3 는 $V_3 = \frac{1}{32^2} \cdot \frac{4ab^5}{15g^3}, \dots$ 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 수열 $\{V_n\}$ 은 첫째항이 $\frac{4ab^5}{15g^3}$ 이고 공비가 $\frac{1}{32}$ 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sum_{n=1}^{\infty} V_n = \frac{4ab^5}{15g^3} + \frac{1}{32} \cdot \frac{4ab^5}{15g^3} + \frac{1}{32^2} \cdot \frac{4ab^5}{15g^3} + \cdots = \frac{4ab^5}{15g^3} \cdot \frac{1}{1 - \frac{1}{32}} = \frac{128ab^5}{465g^3}$$

이 된다.

2022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함수와 도함수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함수의 미분값과 적분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해설

- 함수와 그 도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미분계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시문 [다] 이계도함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평가기준

하위문항	평가기준	배점
-	모든 실수 x, y에 대해 만족하는 다음 식 $f(x+y) - f(x-y) = 2f(y)f'(x)$ 을 식 (1) 이라고 하자. [1단계] $f'(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 (1)을 0이 아닌 실수 y로 나누고 $f(0) = 0$임을 이용하면 $\frac{f(x+y) - f(x-y)}{2y} = \frac{f(y) - f(0)}{y} f'(x)$ 이다. y가 0으로 가까이가면 $\lim_{y \rightarrow 0} \frac{f(x+y) - f(x-y)}{2y} = \lim_{y \rightarrow 0} \frac{f(y) - f(0)}{y} f'(x)$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f'(x) = f'(0)f'(x)$ 이므로 $f'(0) = 1$ 또는 $f'(x)$는 상수함수 0이다. $f(0) = 0$이고 $f(1) = a > 0$이므로 $f'(x)$는 상수함수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f'(0) = 1$이다. [2단계] $f''(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 (1)에 $x = 0$을 대입하면 $f(y) = -f(-y)$를 유도할 수 있고, 양변을 y에 관하여 미분하면 $f'(y) = f'(-y)$를 얻는다. 식 (1)에 $y = 1$을 대입하면 $f(x+1) - f(x-1) = 2f(1)f'(x)$ $f(1) = a$을 대입하고 위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1) - f'(x-1) = 2af''(x)$	30

하위문항	평가기준			배점
-	이다. $x = 0$을 대입하고 $f'(y) = f'(-y)$임을 이용하면, $2af''(0) = f'(1) - f'(-1) = 0$ 이므로 $f''(0) = 0$이다. [2단계 다른 풀이]와 같이 풀 수도 있다. [3단계] $\int_0^2 f(x) d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 (1)에서 $y = x$를 대입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f(2x) = 2f(x)f'(x)$이고 $\begin{aligned}\int_0^2 f(x) dx &= \int_0^1 2f(2t) dt = \int_0^1 4f(t)f'(t) dt \\ &= [2\{f(t)\}^2]_0^1 = 2(\{f(1)\}^2 - \{f(0)\}^2) = 2a^2\end{aligned}$ 을 유도할 수 있다.			30
평가기준	상	S	세 단계를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A	세 단계를 모두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단계 중 두 단계를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C	세 단계 중 두 단계를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D	세 단계 중 한 단계를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하	E	세 단계 중 한 단계를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F	어느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예시답안

모든 실수 x, y 에 대해 만족하는 다음 식

$$f(x+y) - f(x-y) = 2f(y)f'(x)$$

을 식 (1) 이라고 하자.

[1단계]

식 (1)을 0이 아닌 실수 y 로 나누고 $f(0) = 0$ 임을 이용하면

$$\frac{f(x+y) - f(x-y)}{2y} = \frac{f(y) - f(0)}{y} f'(x)$$

이다. y 가 0으로 가까이 가면

$$\lim_{y \rightarrow 0} \frac{f(x+y) - f(x-y)}{2y} = \lim_{y \rightarrow 0} \frac{f(y) - f(0)}{y} f'(x)$$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f'(x) = f'(0)f'(x)$$

이므로 $f'(0) = 1$ 또는 $f'(x)$ 는 상수함수 0이다. $f(0) = 0$ 이고 $f(1) = a > 0$ 이므로 $f'(x)$ 는 상수함수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f'(0) = 1$ 이다.

[2단계]

식 (1)에 $x = 0$ 을 대입하면 $f(y) = -f(-y)$ 를 유도할 수 있고, 양변을 y 에 관하여 미분하면 $f'(y) = f'(-y)$ 를 얻

는다. 식 (1)에 $y = 1$ 을 대입하면

$$f(x+1) - f(x-1) = 2f(1)f'(x)$$

$f(1) = a$ 을 대입하고 위 식을 x 에 대하여 미분하면

$$f'(x+1) - f'(x-1) = 2af''(x)$$

이다. $x = 0$ 을 대입하고 $f'(y) = f'(-y)$ 임을 이용하면,

$$2af''(0) = f'(1) - f'(-1) = 0$$

이므로 $f''(0) = 0$ 이다.

[3단계]

식 (1)에서 $y = x$ 를 대입하면 모든 실수 x 에 대해 $f(2x) = 2f(x)f'(x)$ 이고

$$\int_0^2 f(x) dx = \int_0^1 2f(2t) dt = \int_0^1 4f(t)f'(t) dt = [2\{f(t)\}^2]_0^1 = 2(\{f(1)\}^2 - \{f(0)\}^2) = 2a^2$$

을 유도할 수 있다.

[2단계 다른 풀이] 식 (1)에 x 대신 $x+h$ ($h \neq 0$)를 대입하면

$$f(x+h+y) - f(x+h-y) = 2f(y)f'(x+h)$$

이고 이 식에서 식 (1)을 빼면

$$f(x+h+y) - f(x+y) - (f(x+h-y) - f(x-y)) = 2f(y)(f'(x+h) - f'(x))$$

이다. 양변을 h 로 나누고 h 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하면

$$\lim_{h \rightarrow 0} \frac{f(x+y+h) - f(x+y)}{h} - \lim_{h \rightarrow 0} \frac{f(x-y+h) - f(x-y)}{h} = 2f(y) \lim_{h \rightarrow 0} \frac{f'(x+h) - f'(x)}{h}$$

이므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의 정의에 의해

$$f'(x+y) - f'(x-y) = 2f(y)f''(x)$$

이다. $x = 0, y = 1$ 을 대입하고 $f'(y) = f'(-y)$ 임을 이용하면

$$2af''(0) = f'(1) - f'(-1) = 0$$

이므로 $f''(0) = 0$ 이다.

문제 02

출제의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속도 및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사이 관계를 이해하여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문제해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 가 만족해야하는 조건을 분석하여 점 Q 의 초기속도 a 를 찾고, 직선의 방정식 관련 계산으로 두 점 P, Q 가 네 번째 만나는 시각과 이 만남 직후 점 P 의 속도를 구하여 문제에 맞는 설명을 하면 된다.

평가기준

하위문항	평가기준		배점
-	[1단계] 두 점 P, Q의 위치를 각각 시각 t에 대한 함수 $f(t)$와 $g(t)$로 두고 시각 $t = 0$부터 두 점이 처음 만날 때까지 $f(t) = -\frac{1}{9}t + 1, g(t) = at - 1$임을 보임. [2단계] 문제의 조건을 분석해 $f(t), g(t)$를 두 점이 다섯 번째 만날 때까지 구하고 $a = 1$을 구함. [3단계] 두 점 P, Q가 네 번째 만나는 시각 $\frac{27}{4}$을 구함. [4단계] 이 네 번째 만남 직후 점 P의 속도 $-\frac{1}{9}$을 구함.		30
평가기준	상	S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A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 두 단계를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중	B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 한 단계를 논증이 매끄럽게 보이고 다른 한 단계를 시도만 한 경우
		C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 한 단계를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D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 한 단계를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하	E	[1단계]를 보이면 배점 E 이상 부여
		F	어느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예시답안

[1단계] 점 P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를 $f(t)$, 점 Q 의 시각 t 에서의 위치를 $g(t)$ 라고 하면 시각 $t = 0$ 부터 두 점이 처음 만날 때까지 $f(t) = -\frac{t}{9} + 1, g(t) = at - 1$ 이다.

[2단계] 시각 t_i 를 두 점 P, Q 가 i 번째 만나는 시각이라고 하면 $t_5 = 9$ 이며 $f(t), g(t)$ 는 다음과 같다.

$$f(t) = -\frac{t}{9} + 1 \quad (0 \leq t \leq t_1), \quad f(t) = at - 1 \quad (t_1 < t \leq \frac{2}{a}), \quad f(t) = -at + 3 \quad (\frac{2}{a} < t \leq t_2),$$

$$f(t) = -\frac{t}{9} + 1 \quad (t_2 < t \leq t_3), \quad f(t) = at - 5 \quad (t_3 < t \leq \frac{6}{a}), \quad f(t) = -at + 7 \quad (\frac{6}{a} < t \leq t_4),$$

$$f(t) = -\frac{t}{9} + 1 \quad (t_4 < t \leq t_5),$$

$$g(t) = at - 1 \quad (0 \leq t \leq t_1), \quad g(t) = -\frac{t}{9} + 1 \quad (t_1 < t \leq t_2), \quad g(t) = -at + 3 \quad (t_2 < t \leq \frac{4}{a}),$$

$$g(t) = at - 5 \quad (\frac{4}{a} < t \leq t_3), \quad g(t) = -\frac{t}{9} + 1 \quad (t_3 < t \leq t_4), \quad g(t) = -at + 7 \quad (t_4 < t \leq \frac{8}{a}),$$

$$g(t) = at - 9 \quad (\frac{8}{a} < t \leq t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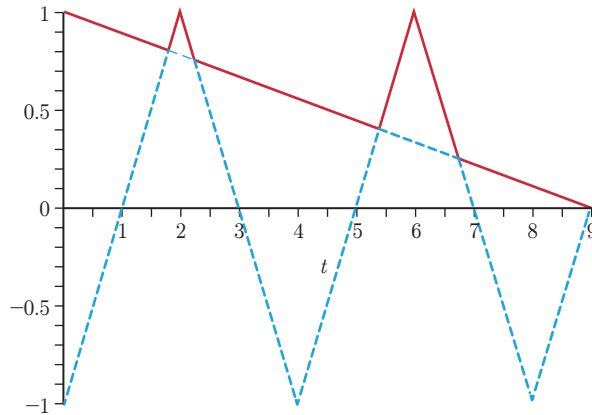
시각 $t_5 = 9$ 에서 두 점 P, Q 가 만나므로 $0 = f(9) = g(9) = 9a - 9$ 이고, 따라서 $a = 1$ 이다.

[3단계] $a = 1$ 이고 $-t_4 + 7 = f(t_4) = g(t_4) = -\frac{1}{9}t_4 + 1$ 이므로 $t_4 = \frac{27}{4}$ 이다.

[4단계] 네 번째 만남 직후 점 P 의 속도는 시각 $t > t_4$ 에서 t 가 t_4 에 충분히 가까울 때 함수 $f(t)$ 의 기울기 $f'(t) = -\frac{1}{9}$ 와 같으므로 구하는 점 P 의 속도는 $-\frac{1}{9}$ 이다.

***평가시 참고사항**

[2단계]에서 $f(t)$, $g(t)$ 의 규칙을 찾아 $a = 1$ 을 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f(t)$, $g(t)$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y = f(t)$: 실선, $y = g(t)$: 점선)

**문제 03****출제의도**

입체도형의 부피를 정적분을 통해 구하고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와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하여 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해설

물통 속에서 하강하는 입체도형으로 인한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출제의도에 가장 잘 들어맞는 답안은 먼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수면의 높이에 관한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후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 정적분 형태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평가기준

하위문항	평가기준	배점
-	[1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 즉 수면의 높이, 입체도형이 물에 잠긴 깊이,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 등을 변수나 함수로 지정함. [2단계] 물에 잠겨서 상승하게 되는 물의 부피가 입체도형의 특정한 일부분의 부피와 같다는 것을 수식으로 작성함. 예를 들어, [첫 번째 풀이]에서 $\int_0^{vt} S(x) dx = \int_{vt}^{z(t)} (A - S(x)) dx$	40

하위문항	평가기준			배점
-	[두 번째 풀이]에서 $(A - S) \Delta h = Sv \Delta t$ 까지 작성함. [3단계] 수면의 상승 속도에 관한 함수에 수면의 넓이가 S인 순간을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함.			40
평가기준	상	S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A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보이고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C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보였으나 논증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D	[1단계]를 작성하고 [2단계]의 수식 유도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경우	
	하	E	[1단계]만 작성한 경우	
		F	어느 단계도 맞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예시답안

[첫 번째 풀이]

입체도형이 물통의 수면에 입수하기 직전의 시각을 $t = 0$ 이라 하고 그때 수면의 높이를 h_0 라 하자. 또한, 왼쪽 그림과 같이 시간 $t \geq 0$ 에 대해 입체도형이 일부분 잠겨 물이 올라간 수면의 높이를 $h(t)$, 입체도형의 최하단에 있는 점 P 에서 수면에 수직으로 올린 수선의 발 R 까지의 높이를 $z(t)$, 수면을 확장한 평면 N 으로 자른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S(z(t))$, 마지막으로 물통의 밑바닥으로부터 높이가 h_0 인 평면 M 에 점 P 로부터 수직으로 올린 수선의 발을 Q 라 하자.

그러면 입체도형이 일정한 속력 v 로 하강하기 때문에 시간 t 동안 입체도형이 하강한 길이, 즉 선분 $\overline{PQ}$ 의 길이는 vt 가 된다. 또한 선분 $\overline{PR}$ 의 길이는 $\overline{PQ}$ 의 길이와 $\overline{QR}$ 의 길이의 합이므로 $z(t) = vt + h(t) - h_0$ 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평면 M 아래에 있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두 평면 M 과 N 사이에 있는 물의 부피와 같아야 하므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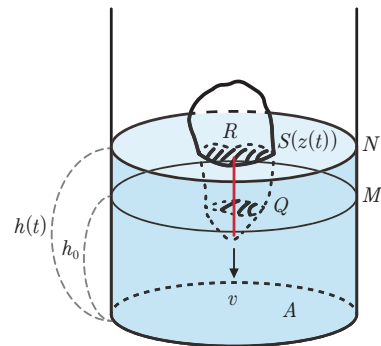
$$\int_0^{vt} S(x) dx = \int_{vt}^{z(t)} (A - S(x)) dx$$

와 같다. 이제 적분 구간을 모두 0에서 시작하는 형태로 바꾸어 정리하면

$$\int_0^{z(t)} (A - S(x)) dx = Avt$$

를 얻는다.

이때 $z(t)$ 가 미분가능하므로 이 식의 양변을 t 에 대해 미분하면



$$(A - S(z(t)))z'(t) = Av \Rightarrow z'(t) = \frac{Av}{A - S(z(t))}$$

이고, $z(t) = vt + h(t) - h_0$ 로부터 $h'(t)$ 를 구하면

$$h'(t) = z'(t) - v = \frac{S(z(t))v}{A - S(z(t))}$$

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려는 순간의 시각을 t_1 이라 하면 $S(z(t_1)) = S$ 이므로 그 순간 수면의 상승속도는

$$h'(t_1) = \frac{Sv}{A - S} \text{ (m/s)}$$

가 된다.

[두 번째 풀이]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가 S 가 되는 시각을 $t = t_1$ 이라 하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시각 t_1 일 때, 수면의 높이가 아니라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이다. 즉, 시각 t_1 이전의 입체도형의 모양과 시각 t_1 이후의 입체도형의 모양은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수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모든 단면의 모양이 문제에서 주어진 입체도형의 단면의 모양과 동일하고 그 넓이는 S 인 기둥 형태의 새로운 입체도형으로 바꾸어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과 같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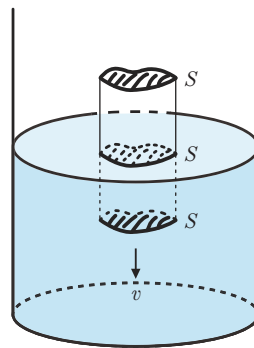
이제 짧은 시간 Δt 동안 기둥 형태의 새로운 입체도형을 v 의 속도로 하강시키면

$$(A - S)\Delta h = Sv\Delta t$$

를 만족하므로 수면의 상승 속도는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Delta h}{\Delta t} = \frac{Sv}{A - S} \text{ (m/s)}$$

가 된다.





2025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3종 가이드북 🔍